

Vol. 6 | 2019 SUMMER

티처빌 매거진

Zoom in Focus

이제는 유튜브 시대, 선생님들이
교육청 홍보를 바꾼다

Class Know-How

상황별 안성맞춤, 손등콕콕도장!

Hot EduTech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가르치는
게임 기반 학습 플랫폼 '코딩갤럭시'

Teacher Life

해외여행의 흥미를 더해주는
초간단 '영어회화'



일러스트 김화인 선생님

COVER STORY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방학!
시원한 바다내음,
아삭한 수박, 까끌한 모래...
또 어떤 추억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표지 일러스트 김 화 인

- 청주 원봉초등학교 교사
- 참쌤스쿨 2기
- 국정교과서 『안전한 생활』, EBS 『방학 생활』, 네이버 지식백과 『중학수학 비주얼 개념사전』 등의 삽화 제작

티처빌 매거진

《티처빌 매거진》은 최신 교육 이슈 및 선생님들의 수업 노하우, 학교 현장의 다양한 소식들을 수록하고 있는 테크빌교육의 사외보 계간지입니다.

2018년 3월 창간 이후 선생님 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한층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선생님들을 만나뵙겠습니다.

《티처빌 매거진》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2018년_vol.1 창간호



2018년_vol.2 여름호



2018년_vol.3 가을호



2018년_vol.4 겨울호



2019년_vol.5 봄호





이과수 폭포

임 승 천

수없이 떨어지는 절망을 아는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무지개를 보는가

아주 급하게 온몸 던지는
찬란한 순간의 소리
아픔까지 버리는 그 자태

이대로 서서 듣는 시간의 둘레
아득한 순간부터 누르던 무게
저토록 온몸 던지는 이유는 무언가

유유히 흘러오는 삶의 빛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
한꺼번에 내리쏟아도 되는가

한 줄기 빛과 숨소리
거기 떠도는 이야기
순간을 떠나는 온몸의 솟구침

평화 뒤에 다가온 절망과 아우성
영원을 잊고 달리는 이 지상의 마지막 축제

사진	이과수 폭포
윤여옥	42.5년의 교직 생활을 은퇴하고 현재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http://www.photoyyo.com

시	이과수 폭포
임승천	1985년 월간 《심상》으로 등단하였고, 2009년 기독교문학상과 2014년 월간문학상을 수상했다. 40년간의 교직 생활을 은퇴하고 시인으로 활동 중이다.

CONTENTS

Vol.6 | 2019 SUMMER



발행처 테크빌교육(주)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51,
5·6·8층(역삼동, 프라자빌딩)

T. 02-3442-7783

F. 02-3442-7793

발행일 2019년 6월 20일

발행인 이형세

기획·편집 테크빌교육 홍보팀

티처빌 매거진 TF

디자인·인쇄 (주)태산애드컴

T. 02-2268-2488



티처빌 매거진은 환경부가 인증한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Zoom in Focus

- 06 이제는 유튜브 시대,
선생님들이 교육청 홍보를 바꾼다 · 김차명
- 10 지식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미래교육으로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 진성룡

Class Know-How

- 16 우리 반은 정약용·신사임당·
세종대왕과 함께한다
밀알샘의 학급운영 독서법 · 김진수
- 18 상황별 안성맞춤, 손등꼭꼭도장! · 김민경
- 22 풀피리와 함께 자연과 놀아요 · 박은주
- 26 “선생님이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아이들과 함께 ‘존재’하는 선생님 · 한혜원
- 28 edu gamification,
수업에 ‘보드게임’을 활용하다 · 이지민

Hot EduTech

- 32 강원 태백에서 전하는 SW 세상 속 학교 모습
혼자보다 같이할 때 더 재미있고 즐거워요
· 장규동
- 34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가르치는
게임 기반 학습 플랫폼 ‘코딩갤럭시’ · 김희웅
- 36 디지털교과서는 보물창고!
우리는 그 속에서 재미있게 수업한다 · 조기성



Interview & People

- 38 전 세계 어린이가 노래로 행복하게!
아카펠라 화음으로 행복한 세상 · 이성희
- 42 행복교실 시크릿! ‘하.감.미.소’ · 양경윤

Teacherville News

- 46 언론에 비친 테크빌교육
- 49 2019년 티처빌연수원 하반기 학사 일정
- 50 2019년 티처빌 신규과정
- 52 티처빌, 교사를 ‘잇다’
네트워킹데이 성료 · 이성희

Teacher Life

- 54 해외여행의 풍미를 더해주는
초간단 ‘영어회화’ · 허준석
- 58 선생님의 이중생활, 요리를 맛보실래요?
· 안혜선

Book

- 60 교과융합 프로젝트 수업과 학습공동체 이야기 /
교사 불신 / 경제교육 프로젝트 /
〈마이크로비트로 떠나는 모험〉 시리즈

Cartoon

- 62 교사 일상 웹툰 - 권선생 단상툰 · 최성권





이제는 유튜브 시대, 선생님들이 교육청 홍보를 바꾼다

경기도교육청 초등 유튜브 콘텐츠지원단

글. 김차명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 미디어 담당

바야흐로 유튜브 시대입니다. 1인 크리에이터들의 놀이터로 시작한 유튜브는 이제 전문 방송인·정치인들까지 본격적으로 달려들어 콘텐츠 플랫폼의 대세가 되었죠. 이미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유튜브)카카오톡)네이버)이 된 지 오래이며 1인당 평균 사용시간이 2018년 4월 882분에서 2019년 4월 1,188분으로 아직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 2019. 5. 13)

특히 교사들의 ‘고갱님’이신 10대들은 유튜브로 소통합니다. 포털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기존 세대와는 달리 정보 검색도 유튜브에서 합니다. 청소년들의 약 73.9%가 유튜브를 “매일 시청한다”고 답했으며, 약 58.4%가 “영상 크리에이터가 되기를 원하거나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2019, 스마트학생복, 총 989명 응답)





약력 김차명

-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 파견교사
- 인디스쿨 미디어콘텐츠 팀장
- 참쌤의 콘텐츠스쿨 운영자
- Visual Thinking 강사·저자
-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해외파견 강사

교육부,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 전수조사

3월 26일 교육부는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을 파악하고자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의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이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개수·구독자 수, 콘텐츠의 직무 관련성 등을 조사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공무원의 품위 유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튜브 활동을 하는지, 교육공무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활동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해 관련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사 934명 976개 채널 운영, 90% 이상은 구독자 1,000명 미만

교육부 조사결과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 중 934명이 976개의 채널을 운영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보고를 안 한 교사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브 교육부 전수조사 자체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교사들에게는 압박으로 느껴졌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또 교사들이 유튜브를 한다는 것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공무원인 교사가 돈벌이 수단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 부담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사결과 교사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90% 이상이 구독자 1,000명 미만이었습니다. 구독자 1,000명 미만이면 광고를 게시할 수 없으므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교사들의 대부분은 수익과는 관련이 없으며, 대부분 학생과의 소통 및 교육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튜버 '달지'가 쏘아 올린 작은 공

교사 유튜버 중 단연 돋보이는 유튜버는 랩하는 초등학교 선생님, '달지'입니다. 무려 27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준연예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2018년만 하더라도 달지는 교사가 유튜브를 한다는 이유로 각종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들어왔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달지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튀는 만큼 공격도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다음은 달지 '나무위키' 내용 중 일부입니다.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해 소속 기관인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재를 받지 않을까 걱정하던 와중, 다행히도 함께 홍보영상을 제작해보자는 제안을 받으며 반 아이들과 함께 <다시 만날 때>라는 곡을 만들고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조회 수 등의 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 아이들과의 첫 만남, 서로 주고받은 사랑,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 등을 자신의 취미인 음악을 통해 랩으로 풀어낸 곡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교육청 홍보 영상 제작 당시 오그라드는 캠페인 송을 제작해야 하나 걱정했지만, '아이들과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음악과 영상에 담아 달라. 그게 경기 교육의 홍보가 될 것이다.'라는 교육청의 말에 감명받았다고 한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재하지 않고 오히려 같이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첫째, 교사의 열정과 재능을 제재하지 말고 믿어주자. 둘째, 뻔한 교육청 정책홍보가 아닌 선생님의 진심을 담자. 이 두 가지 홍보 철학을 기반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초대박이었습니다. 2019년 현재 <다시 만날 때> 유튜브 콘텐츠는 광고 등의 외부 지원 없이 조회 수만 112만 회(달지 채널 74만 회, 경기도교육청 채널 38만 회)에 이릅니다.

1. 랩하는 초등학교 선생님, '달지'.
2. 경기도교육청 초등 유튜브 콘텐츠 지원단과 교육감.



경기도교육청 TV

정책 홍보 중심에서 교사·학생 중심으로 - 경기도교육청 초등 유튜브 콘텐츠지원단

유튜브는 TV와는 다르게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양하고 가벼운 콘텐츠가 많다는 점에서 기존 콘텐츠 플랫폼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10대에게는 이미 문화가 되었습니다. 교육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교육·홍보·문화·소통 모든 부분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경기도교육청 유튜브 채널 이름을 '경기도교육청TV'로 바꾸고 정책 홍보 중심 콘텐츠에서 벗어나 경기도의 교사들과 학생들 중심이 되어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콘텐츠 개편의 중심은 바로 선생님, '경기도교육청 초등 유튜브 콘텐츠지원단'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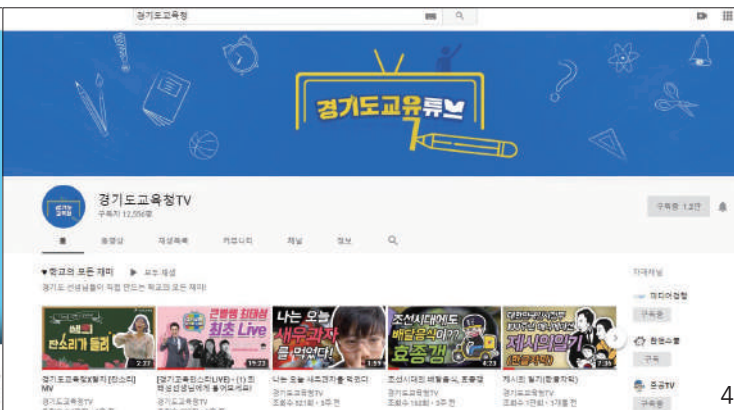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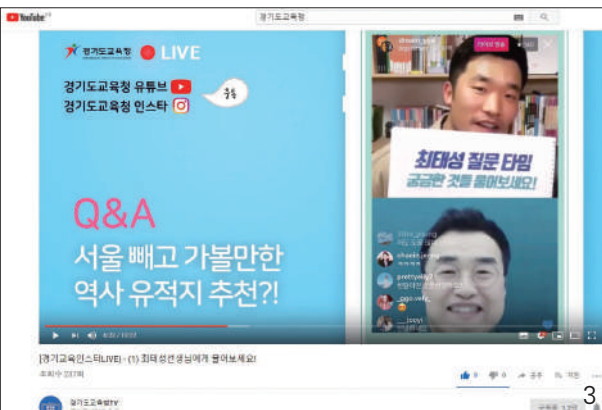
경기도교육청 초등 유튜브 콘텐츠지원단은 이미 현장에서 유튜브와 교육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던 교사 모임 참쌤스쿨·몽당분필·달지·훈공TV 같은 교사 유튜버들이 주축으로 구성했으며, 이들은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 다큐, 학생들이 좋아하는 가벼운 웹 드라마와 스낵 영상,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라이브 방송 콘텐츠, 스승의날 뮤직비디오와 이벤트 등 유튜브 콘텐츠를 혁신적으로 개편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1월 8,000명 정도였던 구독자 수가 2019년 5월 현재 12,500명으로 늘고 조회 수도 수십만 분이 늘었습니다. 이후 교육부도 유튜브 채널명을 '교육부TV'로 변경하고, 교사 유튜브 활용을 장려키로 하는 등(머니투데이, 2019. 4. 30)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변해가는 세상, 교육혁신 위한 변화 필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교육계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이제는 변화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 필요합니다. 교사들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색다른 교육 활동을 평가하거나 질책하기 보다는 허용하고 지원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교육혁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

3. 콘텐츠를 혁신적으로 개편한 '경기도교육청TV'.
4. '경기도교육청TV' 라이브 방송 캡처.





지식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미래교육으로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글. 진성룡 서울 세현고등학교 교장

“

세현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현재 1학년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진로연구 프로그램 관람 중인 세현고 1학년 학생들.

학교 교육현장에 ‘지식에서의 역량’, ‘협동수업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 ‘교수-학습 방법 변화’, ‘디지털 기기의 활용’ 등의 용어들이 활성화되면서 교육 문제 분석과 더불어 미래교육 탐색을 통해 교육정책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경쟁적 서열화를 조장하는 입시 정책과 단순 지식 평가 중심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자는 목소리와 함께, 교육정책에도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학기제, 2015 개정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의 교육정책은 대입입시로 귀결되는 지식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효율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학교 교육의 시작은 ‘행복 교육’

“학교생활은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학생은 거의 없다. 학생들의 반응을 보며, 행복하지 않은 학교생활이 미래 학생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희망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하며, 학생 활동 중심의 교육으로 수업 참여 자체가 즐거움이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중심으로 학교 환경을 구성함으로써 등굣길이 신나고, 학교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재밌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정책은 학생들이 배움의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어야만 미래교육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진로교육’

우리 사회는 일반적으로 평생 한 직장에서 퇴직할 때까지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것이 곧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첫 번째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지금까지 학교현장의 진로교육은 직업선택 위주의 교육이었다. 그러나 미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목표에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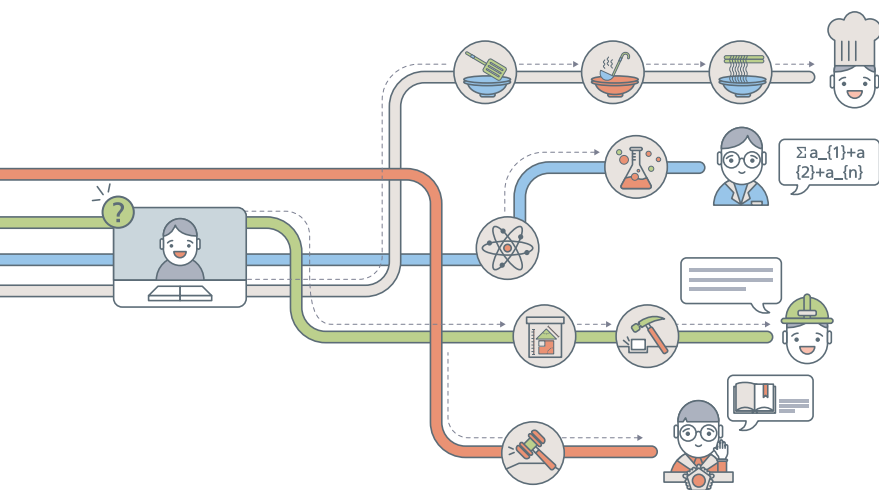
‘왜?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가’에 대한 해답 ‘자유학기제’

기본적으로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스스로를 이해하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 탐색 과정이다. 학생들이 본인의 소질과 적성을 바로 알아 꿈과 끼를 발견하고, 다양한 진로체험을 통해 일과 직업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삶의 목표를 갖도록 하는 것이 자유학기제의 취지다. 때문에 학생들은 진로탐색 과정을 통해 학습 동



약력 진성룡

- 현 세현고등학교 교장
- 교과학점제 교육부 연구학교 운영(세현고)
- 신상중·송례중·신림고등학교 교감
- 자유학기제 교육부 연구학교 운영(신상중·송례중)
- 서울과학고·철락고 교사



기를 갖고, '왜?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기도 한다.

물론 열악한 교육 환경, 학교 구성원들의 관심 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2014년 '알파고'와 최근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이 우리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면서 미래 삶과 인재에 대한 관심이 자유학년제로 확대되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우리 교육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고교학점제'

과거 우리 교육은 대량생산 산업사회에 맞추어 국가 표준화 모델을 기반으로 국민적 역량을 높이고자 했다면, 미래교육은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자의 개성과 고유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대두되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교육정책이라 할 수 있다. 고교학점제는 진로·진학을 연계한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으로, 자기 주도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발전적인 교육과정 편성 체제다. 특히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에게 고교 과정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를 동시에 적용시키는 것은 우리 교육 환경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고교학점제에서는 진로·진학을 연계한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교과별 성취목표, 성취 수준의 적절한 편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방형 교육과정 운영, 교과 선택 진로 컨설팅, 대학과 같은 수업시간표 편성, 학생 이동 수업을 위한 교과교실제 운영, 다양한 교과목 운영을 위한 교원수급계획 등 단계적 계획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진학 수요를 반영한 선택형 교육과정 확산과 이를 뒷받침하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체제 개선,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과 역할 변화를 통한 학교 문화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기 주도적인 미래의 삶 준비할 수 있는 교육

우리 국민들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그동안의 교육정책에 대해 현실적 비판과 더불어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요구해왔다. 미래 교육정책에서 초·중등 교육은 학생들이 15~20년 후에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과 즐거운 학교 교육 활동을 통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우리 학교 현장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 2015 개정교육과정 등은 기술변혁과 산업, 문화가 빠르게 탈바꿈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며,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미래교육에 기대를 갖게 한다. **T**

선생님! 학부모교육 고민이세요?



티처빌이 만든 부모교육 전문 브랜드



변화된 스마트시대에 발맞춰 아이와 함께 '성장하고 공감하는 부모'의 길잡이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고의 교육을 제공해 드립니다.



진로, 학습,
소통역량을 키우는
행복한 부모수업



만족도 95점이상
분야별
전문가 파견



학교별 맞춤
학부모아카데미
커리큘럼 제공



학교, 교육청 단위
학부모 온라인
단체연수 운영



NAVER

부모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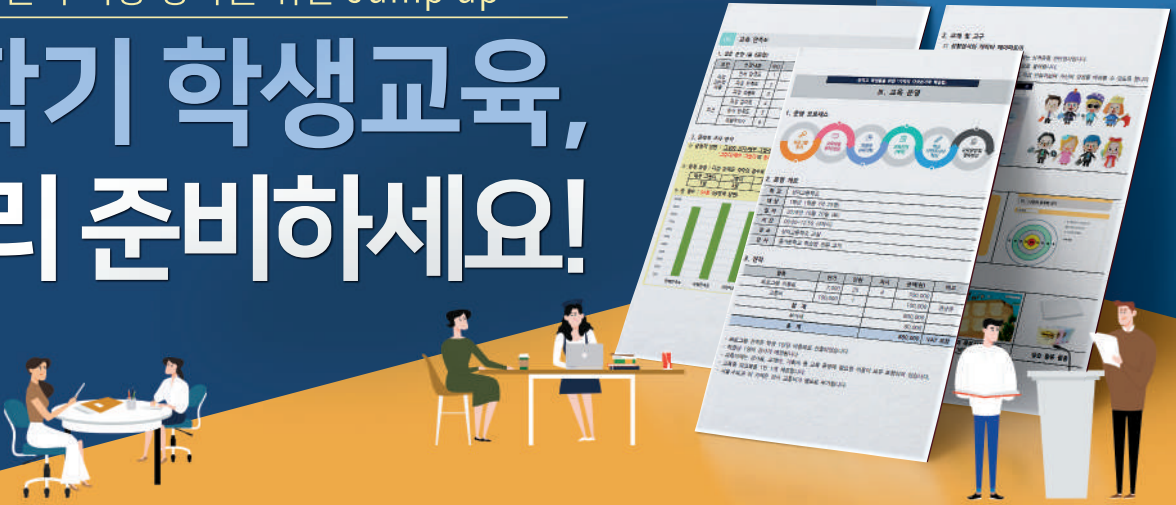
☎ 교육문의 1522-8052



부모공감 바로가기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Jump up

2학기 학생교육, 미리 준비하세요!



학교 예산이 많아도 적어도 계획 가능!



인성/심리



진로진학/학습



SW/메이커



예방/보건



체험/행사/연극

다양한 학생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맞춤형**으로 만나보세요!
즐거운학교가 전국 초·중·고 학교로 찾아갑니다.

초등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창의인성체험 심리검사

SW/메이커교육 진로캠프



중등

자기주도학습역량

자유학기제 창의인성체험

전환기 진로교육 두드림 학습클리닉



고등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고교학점제 진학컨설팅

기초학력 보장 교육격차해소



교육문의

즐거운학교
정소희 선임



070-8282-0140



school@teacherville.com



school.teacherville.co.kr

홈페이지 바로가기





우리 반은 정약용·신사임당· 세종대왕과 함께한다 밀알샘의 학급운영 독서법

글. 김진수 평택 평일초등학교 선생님

“선생님은 학급에서 독서지도를 어떻게 하세요?”

“독서록 쓰기를 어떻게 지도하세요?”

“아이들에게 독서를 시키실 때 권하지 않는 책이 있나요?”

좋은 책 속의 좋은 구절 베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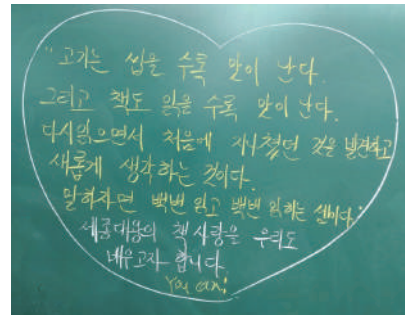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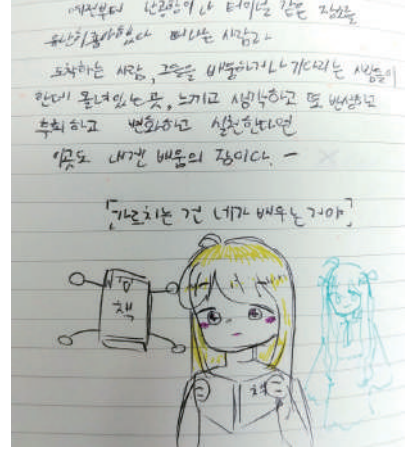
우리 학급에는 다양한 독서가들의 모습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정약용·신사임당·세종대왕입니다.

정약용 선생님과 관련된 책을 읽고, 그가 강조한 대목 중에서 저와 어울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초서’, 책 속의 좋은 구절을 만나면 베껴쓰는 행위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이지성 작가님의 『당신의 아이는 원래 천재다』, 『리딩으로 리드하라』, 김병완 작가님의 『인생혁명』, 김정진 작가님의 『독서 불패』 등 다양한 저서에서 정약용 선생님의 초서, 발체독을 접할 수 있었고, 송재환 선생님의 『초등 고전 읽기 혁명』을 통해 ‘한 소절 노트’ 형식을 빌려와서 학급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하기보다 스스로 알아서 하기

이런 저서들을 토대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책 속의 좋은 문구를 만나면 나중에 적으려고 하지 말고 바로 적으세요. 그것이 쌓이면 독서 내공이 깊어져 책의 깊이를 진정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적는 자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다고 하니 여러분의 마음을 울린 한 소절을 매일 적어보세요.”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단 한 줄만 적어도 좋습니다. 때로는 적을 것이 없을 때는 그냥 지나쳐도 괜찮습니다.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통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약력 김진수

- 제주 김녕초 동북분교장을 비롯해 천안, 파주 등 경기 일원의 초·중·고등학교, 연수원 및 독서모임에서 독서 교육 강연
- 독서모임 3개소(교사 2, 학부모 1) 운영
- 성인 기준 연평균 독서 100권을 위해 독서 동기부여가로 활동
- 『교사가 성장하면 수업도 성장한다』, 『행복한 수업을 위한 독서교육 콘서트』, 『선생님, 마음의 온도(공제)와』, 『밀알한줄기』, 『상상의 나라 밀알랜드』 아동 시집 엮음



끌어낼 뿐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먼저 술선수범해 이와 같은 방법을 하고 있으니 더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종대왕 독서기술 활용하기

우리 반 교실 오른쪽 앞판에는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님의 백독백습 문구가 있습니다.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쓰기를 강조하면서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꾸준히 합니다. 독서를 해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쓰기와 함께하면 더 가슴 깊이 새겨진다는 것어요. '독서-기록-글쓰기'의 조화를 위해 세종대왕의 독서기술을 철저히 베끼는 연습을 합니다. ㉠

말알샘의 하급윤영 독서법 노하우

1. 신사임당식 독서법을 활용합니다

이지성·김종원 작가님의 『가장 낮은 데서 피는 꽃』에서 신사임당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동기부여에 좋은 글귀를 집안 곳곳에 붙이곤 했는데 이를 신사임당처럼 학급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신사임당 따라잡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꾸미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좋은 문구를 주고 자유롭게 A4용지에 꾸며보도록 하고 이를 코팅해 교실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수업을 하다 관련 내용이 나오면 붙여놓은 곳으로 가서 다시 함께 읽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주기적으로 바꿔주면 더 좋겠지요.

2. 매주 금요일은 '한 소절 노트'를 제출하는 날입니다

때로는 몇 줄만 써온 친구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계속 동기부여를 줍니다. "여러분에게 1주일에 한 페이지씩 좋은 문구 선물을 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딱 1페이지입니다. 그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의 삶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느낀 점까지 적어도 좋고, 안 적어도 좋습니다. 1페이지의 감동을 담아주세요."

3. 교실 곳곳에 책을 비치시켜 놓습니다

동화책·인문교전만화·위인전·자기계발서·공부법 등 다양한 저서를 통해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의미를 더해 책 선물을 마윌 것 하고 있습니다. 교실을 작은 도서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4. 독서장 대신 독서 마라톤을 활용합니다

아이들에게 목표를 설정도록 합니다. 마라톤 뛸듯이 말이죠. 책 1페이지에 1m로 측정해 5,000m / 10,000m / 21,100m (하프코스) / 42,195m(풀코스)로 구분해 목표를 설정합니다. 저는 매년 100권, 21,100페이지인 하프코스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보드를 활용해 자유롭게 적곤 합니다. 열심히 함께 땀으로써 서로를 독려하며 이끌어갑니다.



재미와 주의집중 두 마리 토끼 다 잡는다

상황별 안성맞춤, 손등콕콕도장!

글. 김민경 구미 지산초등학교 선생님

“애들아, 부모님께 가정통신문 꼭 보여드리세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정통신문 꺼내서 부모님이 잘 보실 수 있는 곳에 두세요.” “애들아...” 간절한 선생님의 목소리,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잔소리쯤 되지 않을까?

잔소리보다 선생님 마음 담아 손등에 도장 콕콕

학생의 마음이 이해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잔소리라면 부정적인 잔소리보다 긍정적인 잔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항상 무기력하고 소심한 학생들을 격려할 때, 칭찬과 같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도장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선생님의 마음을 담아 ‘손등콕콕도장’이 탄생했다.

재미와 호기심을 주는 메시지 전달

손등콕콕도장은 다른 도장과는 다르다. ‘참 잘했어요’와 같은 검사용 도장과 달리 손등콕콕도장은 다양한 상황에 적용 가능한 학급지도용 도장이다. 재미와 호기심을 가져다주며 상황별 메시지를 전달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집중하게 한다. 각 상황에 안성맞춤인 손등콕콕도장의 다양한 활용 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손등콕콕도장으로 어떻게 학급운영을 할 수 있을까?

활용 방법 1 잔소리하고 싶을 때 찍어주세요!

손등콕콕도장은 가정통신문 배부할 때, 학생의 숙제나 일기를 검사할 때, 우산을 챙기도록 지도할 때, 언어를 지도할 때 등 다양한 학급지도에 사용한다. 반복된 지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준비물을 못 챙겨오거나, 규칙을 어겼을 때 교사는 학생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때 교사는 주로 화를 내거나 잔소리를 한다. 이런 방법은 학생과 교사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하지만 손등콕콕도장을 사용하면 마음이 상하는 일 없이 교사는 하고 싶은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다. 상황에 따른 활용 방법을 알아보자.



〈상황 1〉 가정통신문을 배부할 때

분명 가정통신문을 배부했는데 다음 날 학생이 “선생님, 가정통신문이 사라졌어요”라고 말한다. 가정통신문이 저절로 사라졌을 리가 없다. 학생의 말을 들은 선생님은 “챙긴 것 맞아요? 선생님이 가방에 바로 넣으라고 했죠”라고 말할 것이다. 가정통신문을 배부할 때, 손등콕콕도장을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 선생님이 ‘가정통신문 안전 배달’ 문구 도장을 학생의 손등에 콕 찍어주면서 가정통신문을 건넨다. 학교 후 집에 도착한 학생은 손등에 찍힌 도장을 보며 가정통신문을 가정으로 안전하게 배달할 것이다. 잔소리할 상황이 줄어들었다.

〈상황 2〉 맞춤법, 띄어쓰기, 글씨가 엉망일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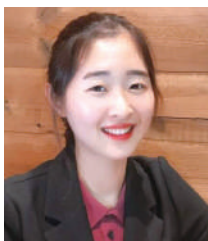
고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맞춤법에 서툴거나 글씨가 파도를 타는 것마냥 삐뚤빼뚤하다. 띄어쓰기를 안 해서 글을 읽는 선생님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일 때도 있다. 심각한 표정으로 글을 읽던 선생님이 ‘글씨가 꿈틀꿈틀’ 도장을 학생의 손등에 콕 찍어준다. 도장을 본 학생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금세 눈치채고 자리로 돌아가 글씨를 고쳐온다. 선생님의 잔소리 없이 학생이 스스로 글씨를 교정했다. 만약 선생님이 학생에게 “이게 뭐야? 다시 써주세요”라고 말했다면 학생은 오히려 반감을 보였을 것이다. 손등콕콕도장 덕분에 학생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했다.

〈상황 3〉 가져온 우산을 챙겨가지 않을 때

오전에는 비가 내렸는데 오후에는 비가 그쳤을 때, 우산 챙기는 것을 까먹는 학생들이 많다. 주인 잃은 우산들이 우산꽃이에 삼삼오오 모여 있다. 선생님은 하교할 때마다 외친다. “우산 까먹지 말고 가져가세요.” 그러나 이미 ‘나는 자유인이다’를 외치며 쏜살같이 교실을 빠져나가는 학생들 귀에 잔소리가 들릴 리 없다. 언어적 표현이 그대로 공중으로 증발해버렸다. 그런 날 ‘우산 잊지마’ 문구 도장을 학생들의 손등에 콕 찍어준다. 다만 모든 학생들에게 도장을 찍어줄 필요는 없다. 교사가 우산 챙기는 것을 자주 까먹는 학생에게 찍어주거나 학생 스스로 찍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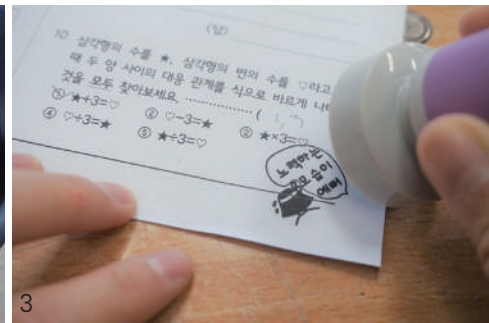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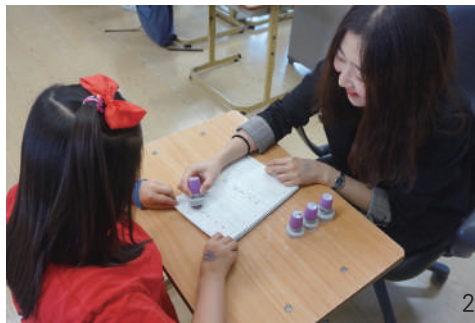
이 외에도 칠판 또는 PPT에 다음 활동 안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그 다음에 뭐 해요?” 하고 묻는 학생에게는 ‘눈 크게 뜨고 다시 살펴볼까?’ 도장을, 욕을 습관처럼 하는 학생에게는 ‘인상 찌푸리게 하는 말 몰라요’ 도장을, 현장체험학습과 같이 안전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혼자 돌아다니지 말아요’ 도장을 활용할 수 있다.

선생님의 잔소리가 없더라도 효과적인 학급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재미와 주의집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손등콕콕도장’이 효과적인 학급지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약력 김민경

- 現 구미 자산초등학교 교사
- 행복교육, 긍정심리학 공부하는 초등 교사
- 『탐개비 초등 사회』 『다함께 놀다 그림놀이터(공저)』
- 손등콕콕도장 개발
- [교육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시간] 블로그 및 쌤스토리, 아이스크림 쌤블로그 운영중



활용 방법 2 격려와 칭찬을 할 때 찍어주세요!

긍정심리학에 따르면 학생들은 부모·교사·친구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을 때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며 행복감을 느낀다고 한다. 경쟁 사회 속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과 격려다. 이를 위한 격려와 칭찬용 손등콕콕도장도 있다.

예를 들어 '오늘도 힘' 도장으로 학급의 아침을 열 수 있다. 학생들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치고 도장을 손등에 찍어주며 "○○아, 오늘도 힘내자!"라는 말과 함께 하이파이브 인사를 하고,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도장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사춘기로 자아에 대한 고민이 많은 고학년 학생들은 언어적인 표현을 어색해한다. 교사는 언어 표현 없이도 학생과 감정적 교류를 하기 위해 '너를 사랑해' 도장을 찍어줄 수 있다. 도장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된다. 언어적인 표현을 생각하고도 학생들은 교사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도장을 활용해 긍정적 행동 강화를 할 수도 있다. 숙제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학생에게 숙제를 낼 때는 '이왕하는 숙제 으샤으샤!' 도장을, 과제를 열심히 수행하는 학생에게는 '노력하는 모습이 예뻐' 도장으로 격려한다. 또한 청소를 열심히 한 학생에게 '청소왕 인정각' 도장으로 칭찬한다.

다양한 문구의 손등콕콕도장

손등콕콕도장, 이렇게 사용하면 좋아요

손등에 도장을 찍어줄 때...

첫째, 사용 전에 학생-학부모 동의를 받는 것이 좋다.

둘째, 도장의 무해함을 알린다.(KC마크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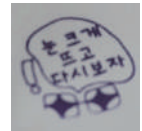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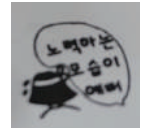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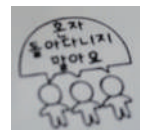
셋째, 물티슈가 있으면 좋다.(물티슈 한 장으로 손쉽게 지울 수 있다!)

넷째, 손등에 도장 찍는 것을 거부하는 학생이 있다면 종이에 찍어주면 된다.

다섯째, 진심어린 눈빛을 탑재한다.

상황별 안성맞춤, 손등콕콕도장으로 선생님의 잔소리가 아닌 마음을 재미있고 솔직하게 전달할 수 있다. 학생들과 도장으로 소통하는 학급경영을 해보면 어떨까? **T**


1. 학생 손등에 도장을 찍어 주었어요.
2. 알림장에 손등콕콕도장을 찍어주고 있는 선생님.
3. "노력하는 모습 예뻐" 시험지에 찍어 본 손등 콕콕 도장.





선생님이 직접 그렸어요!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도장

 티처몰 에서 '에듀박스'를 검색하세요!





1. 자연놀이 미술활동 - 낙엽 사자 만들기.(2학년)

교실 안 폴피리와 자연놀이

폴피리와 함께 자연과 놀아요

글. 박은주 광명 소하초등학교 선생님

신규교사 시절, 음악시간에 국악을 가르치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당황스러웠던 점은 아이들이 국악시간을 그다지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특히 기악 영역에서 배운 곡을 단소로 연주해보자 했더니 아이들이 볼멘소리를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의 말을 요약해보면, 3년 연속 단소를 배워 더는 이 악기가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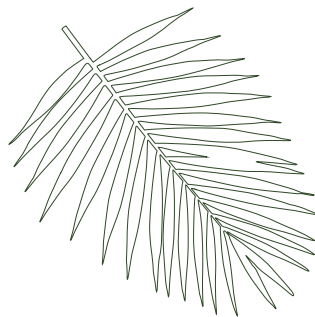


약력 박은주

- 現 광명 소하초등학교 교사
- 경기 무형 문화재 제 38호 폴피리 보유자 전수
- 한국 폴피리 협회 운영위원
- 폴피리 교육 1급 지도사
- 폴피리와 자연놀이 블로그 운영



2. 쉬는 시간에 풀피리 소리내기 연습하는 아이들.(4학년)
3. 음악시간 풀피리 연주.(6학년)
4. 1인 1악기 및 1화분 키우기.



한동안 '단소와 소금 외에 어떤 국악기가 교실에서 가락악기로서 다뤄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곧 '다 이유가 있어서 단소, 소금만 교과서에서 다루는 것이구나!'를 깨닫고는, 가창 수업이라도 제대로 충실히 운영해보고자 민요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그곳에서 때마침 공연 준비로 민요를 배우러 온 풀피리 경기무형문화재 전수생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옛이야기 속에서나 전해 들던 풀피리를 악기로서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심지어 풀피리 경기무형문화재 선생님이 계시다니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한달음에 찾아가 풀피리 경기무형문화재 선생님을 만나 뵈게 되었어요.

잊힌 우리 국악기, 풀피리를 교과에 도입하다

무형문화재 선생님과 만남에서 풀피리가 옛날 민간에서만뿐만 아니라 궁궐에서도 정식 악기의 자격으로 정악 연주에 참여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 세종 때 편찬된 『악학궤범』에 우리의 전통 향악기로 분류되어 연주법까지 전해지고 있을 만큼 그 위상이 대단했지만,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풀피리 명의 명맥이 끊어져 대중들에게는 잊힌 악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풀피리를 음악시간에 도입한다면 제가 느끼고 있던 학생들의 '국악 가락 악기의 다양성 부족'으로 인한 국악 흥미도 저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풀피리무형문화재 선생님을 지속적으로 찾아뵈며 풀피리 연주법을 전수받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의 풀피리 실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자, 풀피리로 주로 이용되는 공기정화 식물의 일종인 스파트필름을 교실에 마련해놓고 아이들에게 풀피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풀잎을 잡는 법, 소리를 낼 때 입의 모양, 이렇게 딱 두 가지만 알려주고 자유롭게 연습해보라 했더니 첫날에 성공한 친구들이 다섯 명이나 되었습니다. 소리내기엔 성공한 친구들이 쉬는 시간마다 뽀뽀 소리를 뽐내며 돌아다니니, 다른 친구들이 자극받아 점차 소리를 낼 수 있는 친구들이 늘어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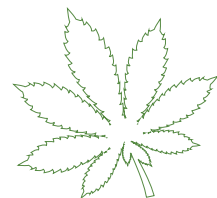
니다. 단순한 유희 활동으로 풀피리 소리내기에 열을 올리던 학생들을 향해, 풀피리는 우리의 국악기이므로 원한다면 국악 기악 시간에 단소와 풀피리 중에서 선택해 연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매우 놀라워하면서도 설레하던 아이들의 눈빛들이 떠오릅니다.

풀피리를 자연놀이로 확장하다

풀피리는 소리내기만 제대로 할 줄 알면 자기가 노래할 수 있는 대부분의 곡을 연주할 수 있는데, 풀피리 소리내기에 성공하려면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보통 개인의 능력에 따라 하루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요. 아이들 모두가 풀피리 소리내기에 성공해 음악시간에 함께 풀피리 연주를 하고 싶었던 마음에 다른 교과와의 융합 수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자연물을 이용해 수업활동을 하고, 활동이 끝나고 남은 시간에는 독성이 없는 풀피리 재료인 단풍나무 잎, 강아지 풀잎, 아카시아 풀잎 등으로 풀피리 소리내기 연습을 하게 하면 좋겠다 싶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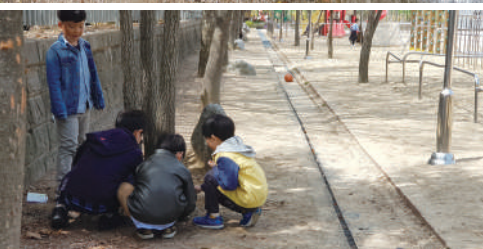
그래서 하늘이 파랗고 날씨가 선선하면, 아이들과 함께 교실 밖으로 나가 지천으로 널려 있는 자연의 재료를 가지고 미술수업, 놀이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자연수업 활동을 구상하면서 아이들이 혹시 화단에 몰려 들어가 애써 가꾼 관상화를 망가뜨리고, 나뭇가지를 마구 부러뜨려 나무에 피해를 주면 어쩌나, 재료가 흔히 보던 자연물이라 흥미 없어하면 어쩌나, 한정된 재료라 작품의 수준이 낮으면 어쩌나를 걱정했어요. 그래서 다음의 원칙들을 신신당부하고 활동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5. 자연놀이 쉬는 시간에 강아지풀로 소리내기 연습.(2학년)
6. 쉬는 시간에 풀피리 소리내는 법 친구에게 알려주기.(2학년)





7



8



9

7. 자연놀이 자연물 줍기.(2학년)
8. 자연놀이 미술활동 - 딱새 둥지 만들기.(2학년)
9. 자연놀이 활동 - 강아지풀 애벌레 다이빙놀이.(2학년)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자연물 위주로 활동하기, 한해살이 풀 위주로 채집하기, 나뭇가지나 꽃 함부로 꺾지 않기,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참여하기.

그런데 저의 이러한 걱정들이 무색하게도 아이들은 제 기대보다 훨씬 자연놀이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자연물만 이용해 다양하고 기발한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나뭇가지를 꺾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꽃 한 송이라도 밟을까 까치발을 들고 살금살금 걸어다니는 어여쁜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참으로 기특하여 '어쩔 이렇게 태도가 훌륭하니!'라고 칭찬해주자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자연물을 줍기 위해 바닥을 보고 돌아다니다보니 평소 눈에 띄지 않았던 개미도 보이고, 들꽃도 보이고, 새싹도 눈에 보여 마구 밟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은 자연놀이 모둠활동을 끝내고 시간이 남으면, 삼삼오오 모여 강아지풀로 닭소리도 흉내내고, 아카시아 잎으로 새소리도 흉내내며 자연스럽게 풀피리 소리내기를 연습했습니다. 능숙한 아이들은 친구들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짧은 동요도 연주했지요.

풀피리의 명맥 이어나가고 싶은 포부

끊어진 풀피리의 명맥을 아이들을 통해 이어나가고 싶다는 원대한 포부가 첫 시작이었습니다. 목표가 거창하니 풀피리 소리가 잘 나지 않는 아이들에게, 열심히 연습해서 이번 주까지는 꼭 소리를 내 보도록 노력해보자며 은근히 채근하던 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교실 밖으로 나가 자연과 함께하니, 굳이 교실 안에서 애써하게 풀피리를 권유하지 않아도 모든 과정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앞으로도 거창한 기대와 욕심은 내려놓고 아이들과 교실 밖에서 풀피리를 즐기며, 자연의 재료와 함께하는, 그야말로 가장 자연스러운 수업을 위해 즐겁게 고민하고 연구할 생각입니다. **T**

“선생님이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아이들과 함께 ‘존재’하는 선생님

글. 한혜원 서울우이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



뭐라도 이야기해줘야 한다는 생각과 조바심이 문제

“어차피 선생님이 해결해주실 수 없다는 것 잘 알아요.”

상담을 하던 중 당찬 소희(가명)의 말에 제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사실 소희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죠. “선생님, 저 고민 있어요”, “선생님, 저 힘들어요”라고 저를 찾아오는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아이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빨리 웃으며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는 조바심이 들면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자조적인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명색이 상담교사인데 아이들에게 뭐라도 이야기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저 스스로도 가끔은 조바심이 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제 마음을 간파하고 저의 뒤통수를 때렸던 소희가 뒤이어 한 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선생님이 그냥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아이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해결이 아닌 공감

상담실에는 응원박스가 있습니다. 응원박스에는 아이들이 누군가를 위해 쓰는 응원쪽지가 들어 있습니다. 누가 어떤 일로 상담실에 찾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쪽지를 통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아이들은 응원쪽지에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써서 응원박스에 차곡차곡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응원이 필요할 때 어김없이 상담실에 와서 응원쪽지를 뽑아갑니다. 아이들이 직접 쓰는 응원쪽지에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오늘 너는 모든 일을 잘할 수 있어.

너를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넌 참 훌륭하고 멋진 아이일 거야.”

“혼자라는 생각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상담실의 응원쪽지함과 아이들이 직접 작성한 응원쪽지.

아이들은 제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말이지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아이들의 응원쪽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해결책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주기를, 그럼에도 자신이 소중하고 참 귀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생님만은 알아봐주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일어서서 두박두박 걸어갈 힘이 생긴다는 것을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들과 함께 존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물론 때로는 선생님의 조언과 도움이 아이들에게 큰 역할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선생님의 생각과 경험을 이야기해주면서 아이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때 아이들은 한 뼘 더 자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이들과 대화할 때 3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아이들을 새로운움의 눈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교직 경력의 점점 쌓이게 되면 아이들의 고민 한 줄만 들어도 어떤 고민인지 척하면 알게 되는 척척박사의 단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아이의 마음은 나의 생각과 경험과는 다른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할 때 빠질 수 있는 확증편향의 오류를 기억하면서 아이의 이야기를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진심으로 궁금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비로소 열게 됩니다.

둘째, 아이들에게 선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아이들이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그 본심은 그게 아닐 수 있겠다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 이유 없이 그러지는 않았을 거야”라는 선생님의 말 한 마디로 아이들은 선생님이 나를 믿어준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아이들의 행동 뒤에 감춰진 선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셋째, 함께 존재해주세요. 홀로 길을 걸으면 외롭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라도 내가 가는 길에 말벗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길을 걸어갈 힘이 생깁니다. 아이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기보다 함께 존재하는 사람, 해결책보다 공감을 바라는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나와 함께 존재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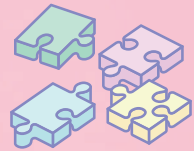


약력 한혜원

- 서울우이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
- Vee클래스 컨설팅 자문위원
- 서울시교육청 학생심리정서 자료 제작위원
- 세종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고등학교 심리학 강사
- 『따뜻한 리스너의 마음로그』 운영
- 티처빌 「상담백과 알아보는 우리학급 동상이몽」 연수강사
- 저서 『초등감정사용법』

edu gamification, 수업에 '보드게임'을 활용하다

글. 이지민 인천간석초등학교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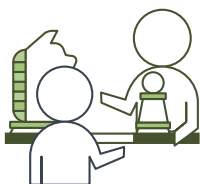
에듀 게이미피케이션(edu gamification)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게이미피케이션이란 게임의 요소를 적용해 다른 분야에서 문제해결, 관심유도, 지식전달 및 교육, 행동변화 등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교육에 적용해 학생들의 자발적·능동적 수업 참여를 이끌도록 하는 것이 에듀 게이미피케이션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더 참여하도록, 창의 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수업할 수 있을 까를 고민하던 선생님들께서 에듀 게이미피케이션을 학교 교육현장에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 중 보드게임을 수업에 활용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보드게임으로 수업을 한다고? 보드게임은 수업에 활용하는 소재로 사용해야

보드게임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할 때 주변에서 “거기 학생들이 논다고 좋아하겠네!”, “아이들한테 보드게임을 주고 교사는 편하게 쉴 수 있겠네!”, “아니, 그게 공부가 되겠어?”라는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거의 교육효과에 의문을 갖는 내용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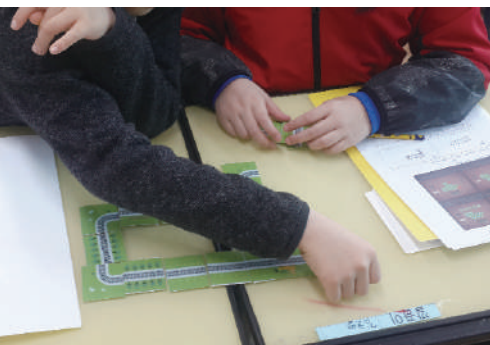
수업시간에 보드게임을 주고 학생들이 알아서 놀도록 내버려둔다면 학습목표에 도달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보드게임을 하며 자연스럽게 협동심을 기르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게임의 방식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계산력이나 공간지각력 등을 기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수업시간에 학습목표에 도달하고자 보드게임을 사용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쌓기나무 개수를 탐구하는 학생들의 모습.



모노레일과 님게임을 활용하여 수 배열을 탐구하는 학생들의 모습.

접근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내놓은 「학습 환경을 디자인하는 교사」 보고서에서는 교육 게이미피케이션의 요건으로 ① 구성원 모두의 직접적인 참여 ② 놀이를 통한 배움 ③ 상호 연결성 ④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피드백 ⑤ 지속되는 도전 등을 들고 있습니다.

실생활 속에 다양한 자료를 수업에 연결해 활용하듯이 보드게임을 수업과정에 적절하게 융합, 활용하면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과 함께, 즐겁게 배움이 일어나는 교실이 될 것입니다.

단원과 관련 있는 소재의 보드게임을 일반 수업에 활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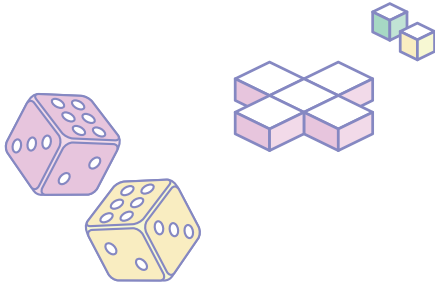
초등학교 6학년 수학에서 학생들의 공간 지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쌓기나무'를 활용한 단원이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 학생들은 쌓기나무의 개수를 알아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탐구하게 됩니다. 단순히 여러 방법을 익히는 것보다 탐빙고 보드게임을 이 단원 학습과 연결해 학생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탐빙고 보드게임은 쌓기나무를 번갈아 쌓아서 같은층으로 빙고를 만드는 게임입니다. 특히 맨 위층의 쌓기나무의 색이 자신의 색이어야 하기 때문에 쌓기나무의 쌓인 모양을 위에서 바라보고 층수를 생각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게임판에 쌓기나무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쌓고 그 개수를 알아보는 다양한 방법을 탐구합니다. 이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다양한 방법(위·앞·옆에서 본 모양을 보고 그리기, 각 층수별 쌓기나무 개수 세기, 쌓기나무를 위에서 본 모양에 각 층수 적기 등)을 학습합니다. 그런 다음 이 방법들을 적용하면서 보드게임의 규칙에 따라 각 모둠별로 이 보드게임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게임이 끝난 후 자신이 승리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주로 활용하는지 이야기를 나누며 수학적 의사소통을 하도록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쌓기나무 단원과 관련 있는 소재의 보드게임을 수업에 활용하면 학생들이 보다 즐겁게 탐구하며 자연스럽게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창의융합 영재수업, 보드게임으로 융합해 새로운 생각을 이끌어내기

영재수업에서 보드게임을 활용하면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더욱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수학영재·과학영재·예술영재와 같은 분절적인 영재수업에서 다양한 교과, 다양한 소재를 융합한 영재수업으로 흐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영재수업에 보드게임을 융합해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수업소재와 공통점이 있는 보드게임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학 영재수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님게임' 소재와 '모노레일'이라는 보드게임을 융합해 수업을 진행합니다. 님게임은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1~3까지의 구슬



을 일렬로 놓고, 최종적으로 31번째의 구슬을 놓으면 패배하는 게임입니다. 모노 레일은 1~3개까지의 기차길을 번갈아 연결해 한 바퀴의 기차길을 만드는 게임인데, 상하좌우로 연결된 네 방향 넘게임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분석해 규칙을 발견하는 과정의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수업소재와 공통점이 있는 보드 게임을 융합하면 영재학생들의 발전적인 사고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혀 다른 두 개의 소재를 융합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익숙한 소재인 빙고게임과 쌓기나무를 융합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빙고게임의 가장 간단한 형태인 틱택토 게임을 활용해 승리하기 위한 최적의 위치와 경우의 수를 탐구하도록 합니다. 이후에 쌓기나무를 활용해 똑같이 쌓기, 개수 탐구하기 등과 같은 수업을 진행합니다. 최종적으로 상관없을 것 같은 이 두 가지 소재를 융합한 탐빙고 보드게임을 수업에 활용합니다. 학생들이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빙고게임에서 확률적으로 유리한 위치 찾기, 쌓기나무의 개수 탐구하기 등을 직접 활용하며 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전혀 다른 소재의 융합으로, 새로운 산출물을 생각해보며 자신만의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양한 보드게임을 활용하여 창의 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즐거운 수업을 꾸며보는 것은 어떨까요? ⑦



탐빙고 보드게임을 활용한 융합 영재수업 활동 모습.

**즐거운학교와 티처몰이
선생님들의 SW 융합 메이커교육을
지원해드립니다!**

스토리 메이킹
레고 디지털 디자이너
미래 건축사 도전



피지컬 컴퓨팅
탐정로봇 알버트,
결정적 단서를 찾아라



게임 메이킹
멋진 뽀빠, 게임 기획자 되기



코딩
마인크래프트 에이전트,
황당한 동물원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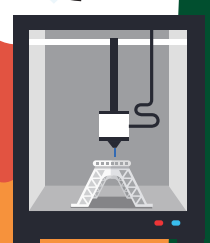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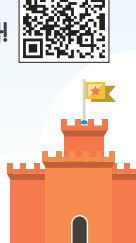
디지털 메이킹
디지털 찰흙놀이로 만드는 세상



아날로그 메이킹
성을 무너뜨려라



스토리 메이킹
VR드라마 제작 체험



**메이커교육을 도와주는
메이커키트를 활용하실 수 있어요!**

메이커 스페이스가 없어도, 엄청난 장비나 비싼 재료가 없어도,
즐거운학교 교과 연계 메이커키트만 있으면 OK!
선생님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했어요!

(출시 예정)

염기어

종이 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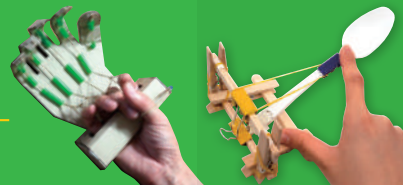
진동로봇

크레인

안센 매커니즘

트러스트

문의 : 02-3442-7783(232) 강진영 선임



매커니컬핸즈

캐터펄트

티처몰

주요 메뉴

메이커키트

추천키워드 #수업비품 #자유학년제 #교육용드론 #학교



강원 태백에서 전하는 SW 세상 속 학교 모습 혼자보다 같이할 때 더 재미있고 즐거워요

글. 장규동 태백 황지중앙초등학교 선생님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역량 중 하나는 바로 창의적 사고 역량입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5~6학년에서 SW교육이 의무화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SW 교육을 하려다보면 뭔가 어렵고 대단한 것을 해야 하나 싶고, 방향을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 강원도 태백의 한 초등학교에서 SW교육을 진행해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교육과 재미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보면 어떨까요?

주변 선생님의 추천과 알려진 사이트 통해 쉽게 접근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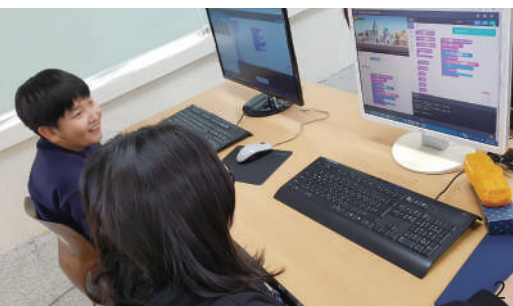
사실 SW교육을 진행하면서 처음 부딪히는 문제는 바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주변 선생님들의 추천과 알려진 사이트를 통해 접근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처음부터 '새로움'을 추구하고자 하면, 결국에는 교사와 학생 모두 1시간이 지나 '낯설고 어려움'이라는 단어 앞에서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따라서 code.org, 네이버 엔트리, 초등컴퓨팅교사협회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사례를 찾아보고 그중에서 교사가 쉽게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학생들과 함께 '코딩 주간'을 통해 미션 해결하기 학습을 진행해보십시오. 그러면 좀 더 쉽게 SW교육을 이해할 수 있고, 학생들도 흥미를 보일 것입니다. 이는 학급이나 동아리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급에서의 운영은 여러 학생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하는 부분이기엔 창체시간 등을 이용해 엔트리 미션 해결하기를 따라 해보고, '틀려도 괜찮으니 만든 것을 공유해보기'라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컴퓨터실을 갈 수 없다면 교실에서 숫자 야구게임을 통해 컴퓨팅 사고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동아리 형태로서의 운영은 과거 '삼성 주니어 소프트 아카데미'



약력 장규동

- 現 태백 황지중앙초등학교 진로정보부장 겸 2학년 담임교사
- 現 교육부 블로그 기자단 활동
- 現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원격연수원 튜터 활동
- 티처빌 자문단 활동 및 쌤동네 콘텐츠 연재
- 강원 NIE 대회 참가 및 수상(금상 2회, 은상 3회, 동상 3회)
- 디지털교과서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입상
- 교육정보화연구대회 참가 및 수상
- 삼성전자봉사사업단 주니어소프트아카데미 운영





1. 삼성 주니어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학생 발표.
2. 코딩주간 행사 참여.
3. 스마트폰 활용 뚜루뚜루 로봇 학습.
4. 마이크로비트 활용 학습하는 학생들.

때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을 하나의 교재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4인1조로 조 편성을 한 후, 해당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별 과제를 부여하고, 이를 능동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부분의 수업을 진행해보기도 했습니다. 혼자일 때보다 같이 하게 되면 의외로 학생들은 문제 해결력과 의사소통 능력도 같이 향상되는 측면도 있기에 이 부분도 고민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체험과 놀이 위주의 흥미 학습을 유발하라

사실 'SW교육=코딩학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SW교육 활동 중 피지컬 컴퓨팅, 즉 주어진 하드웨어를 움직이게 하는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코딩이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자칫 코딩에만 열중하게 되면 학생들은 금세 지치고 '외우는 학습?'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이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외면을 당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체험과 놀이가 가미된 학습을 진행하는 것 또한 분명 중요한 SW의 요소입니다. 가령 '뚜루뚜루'라는 로봇을 스마트폰으로 움직이게 하는 수업 같은 경우 별다른 지식이 없어도 블루투스로 연결해 해당 로봇에 명령을 주어 움직이거나 소리가 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라인을 움직여보는 것 또한 학생들에게는 신세계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한 수업을 한 달에 한 번 SW동아리 시간에 하고 있는데 버튼을 눌러서 표정 바꾸기 등의 미션을 주는 과정에서 간단한 코딩만으로도 학생들의 의도한 부분이 결과로 나올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SW에 대해 관심을 갖기 충분합니다. 결국 어떤 학습이든 체험과 놀이가 기반이 된 흥미 위주의 학습은 교사가 의도하고자 하는 목표로 다가가기에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수를 통해 SW가 일상 속 스며들 현상임을 알리자

교육과정은 바뀌고 새로운 교육 내용이 제시될 때마다 교사·학생·학부모는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SW교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각 시·도교육청별로 하는 여러 가지 연수도 있고, 터치별 등 교수학습지원 사이트에 온·오프라인 연수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사가 능동적으로 연수 참여 및 연구를 통해 나선다면 SW교육에 대한 어려움 또한 차차 없어지리라 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SW교육의 목표가 컴퓨팅 사고력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이므로 초등학교에서는 실과 교과에 편성되어 있지만, 기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과의 융합을 통해 놀이와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체험중심으로 쉽고 재미있게 배우며 그 의미를 키우는 시간이 더욱 많아지길 기대해봅니다. ㉮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가르치는 게임 기반 학습 플랫폼 ‘코딩갤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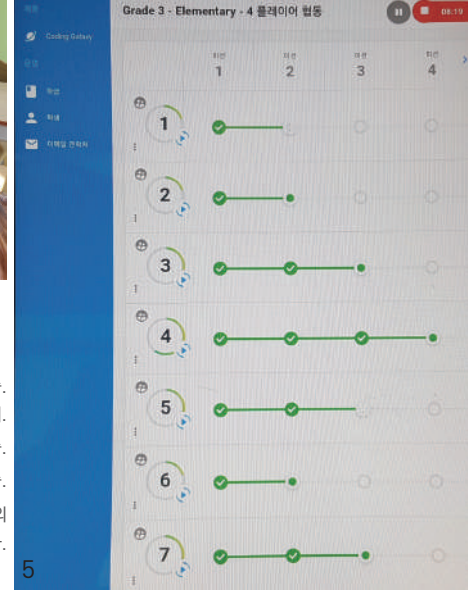
글. 김희웅 화성 태안초등학교 선생님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SW교육이 필수화되면서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의 SW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습니다. 선생님들의 관심은 SW교육의 저변 확대와 교육 방식의 다양성으로 표출될 것이고, 학부모들의 관심은 학교 현장을 움직이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SW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올해, 학생들과 어떤 수업, 어떤 활동을 할지 고민이신가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형 프로그램, 수준별 학습과 협업이 모두 가능한 ‘코딩갤럭시’가 SW교육에 대한 선생님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아이들에게 익숙한 게임 형식 차용, ‘코딩갤럭시’ 활용한 SW교육

경기도 화성 태안초등학교는 2018학년도부터 교실 수업 개선과 미래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무선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교육 방법을 도입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SW교육 분야에서도 여러 시도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코딩갤럭시’입니다. 선생님과 학생 모두 생소하게 느끼기 쉬운 코딩을 아이들에게 익숙한 게임 형식을 차용해 수업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입니다.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한 결과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아마도 학생들에게 익숙한 온라인 스마트폰 게임과 조작 및 진행 방식이 유사하기 때문에 더욱 흥미를 느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몇몇 학생은 가정에서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코딩갤럭시’에 접속해 스스로 미션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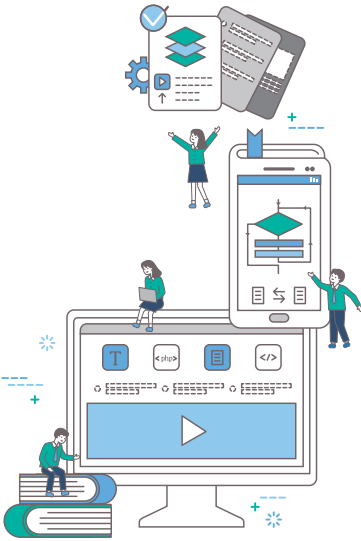
1. 코딩갤럭시를 익숙하게 다루는 학생의 모습.
2. 자연스럽게 의사소통과 협업을 유발하는 코딩갤럭시.
3. 협업 미션을 수행하는 학생들의 모습.
4. 함께 미션을 해결하는 학생들의 모습.
5. 코딩갤럭시 협업 미션 교사용 화면. 학생들의 진행 상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 온라인 협업 미션 통해 의사소통 능력과 리더십 키워

‘코딩갤럭시’의 가장 큰 특색은 실시간 온라인 협업 미션 기능입니다. 다른 프로그램들은 학습활동이 개인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코딩갤럭시’는 팀 단위로 수행해야 하는 협업 미션이 존재합니다. 협업 미션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활발한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팀원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차원적인 문제해결 과정을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협업 미션 뿐만 아니라 개인별 자기 주도 학습에도 최적화되어 있어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 현장에서 그 활용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코딩갤럭시’는 학생들의 학습 과정과 결과가 서버에 기록되며 AI(인공지능) 분석 시스템을 통해 학생 개인의 성취 정도와 학습 수준을 보고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교사가 학습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는 평가에 대한 고민을 상당 부분 해결해주는 큰 장점이라 생각됩니다.

태안초등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과 실과 교과 시간을 ‘코딩갤럭시’ 프로그램에 할애해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따른 SW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SW체험 행사와 ‘코딩갤럭시’ 대회를 개최해 학생들이 SW교육에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약력 김 희 응

- 경기 태안초등학교 교사
- 교육부 소프트웨어교육 강사 교원 활동
-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교과서 강사 교원 활동
- 경기도교육청 지정 융합형 소프트웨어 체험학습장 운영 중

SW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선생님들을 위하여

제 생각에 SW라는 수단의 생소함 때문에 지나치게 위축되고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SW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길러야 하는 능력은 결국 문제해결, 의사소통, 창의성과 같은 것들이기에 정답을 제시해줘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관련 분야에 대한 어느 정도 소양도 필요하겠지만 SW교육의 본질에 집중한다면 수업에 대한 고민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⑦

디지털교과서는 보물창고! 우리는 그 속에서 재미있게 수업한다

글. 조기성 서울 계성초등학교 선생님

2011년부터 스마트기기 활용한 교실 만들기 위해 노력

디지털교과서라고 하면 다들 LMS가 들어가고 화려한 자료가 들어가 있는 미래형 교과서를 생각할 것이다. 2011년 6월 정부에서 스마트교육추진전략이 발표되기도 전에 A사의 태블릿PC를 본 순간 '이런 태블릿을 교과서 대신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국내 S사를 설득해서 2011년 10월 개별학생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교실을 만들게 되었다. 그 당시는 일반 사람들도 스마트폰의 개념이 거의 없을 때여서 온갖 우려와 오해에 직면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교과서를 대체해보려 했는데, 모바일용 디지털교과서는 만들어지지도 않았던 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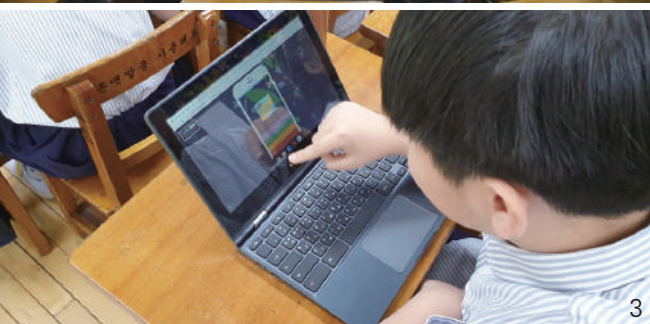
약력 조기성

- 現 (사)스마트교육학회 회장
- 現 마이크로소프트 MIEE 및 쇼케이스 스킴 담당
- 現 칸아카데미 자문, 구글 G-SUITE FOR EDUCATION 그룹 운영
- 現 다수 에듀테크 기업 자문
- 現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연구 집필
- 교육부 첨단미래학교 자문단
- 교육부 국정사회과 3, 4, 5학년 디지털교과서 심의위원
- 교육부 스마트교육·디지털교과서 정책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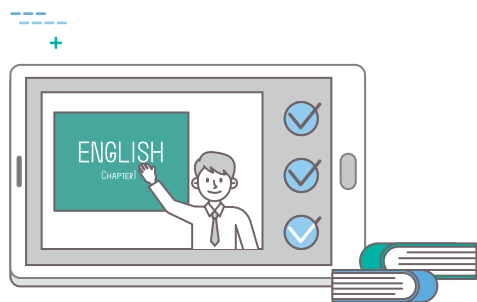


2



3

1. 디지털교과서로 수업하고 있는 아이들.
2. 수업을 참관하고 있는 해외 교육 관계자들.
3. 클래스카드의 전국퀴즈배틀.
4. 플립그리드로 해외 학생들과의 교류.



교과서 PDF를 활용해서 링크를 표시하여 학생들 디바이스에 전송했고,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한 앱을 통해 재미있는 학습을 할 수 있었다.

대통령이 바뀌고 스마트교육추진전략은 허공으로 사라지고 디지털교과서 정책만이 살아남았다.

디지털교과서, 글로벌 플랫폼 교육도구 마음껏 활용 가능

디지털교과서가 보급된다는 것은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와 무선 인프라가 갖춰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단순히 디지털교과서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글로벌 플랫폼의 교육도구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실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도구를 보면 글로벌 G사의 G SUITE FOR EDUCATION을 통해 클래스룸부터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고, M사의 FLIPGRID를 비롯한 다양한 도구, 칸아카데미를 통한 수학공부, 클래스카드, 캐치잇잉글리시, PRODIGY 등의 게임을 활용한 교육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번 시작하면 아이들의 열광적인 반응 때문이라도 멈출 수가 없다. 최근에 하고 있는 클래스카드의 전국퀴즈배틀은 우리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학급이 열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디지털교과서가 있다는 것은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가 가득한 보물창고에 함께 들어간다는 것이다. ①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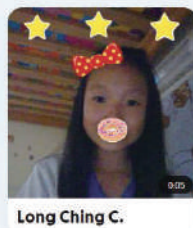
최민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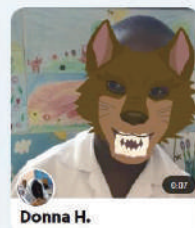
황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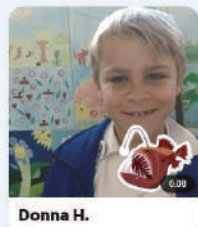
채연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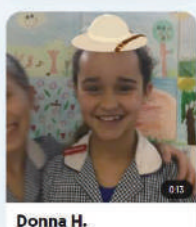
Long Ching C.



Donna H.



Donna 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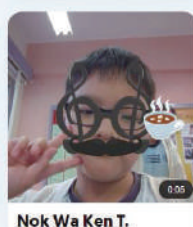
Donna 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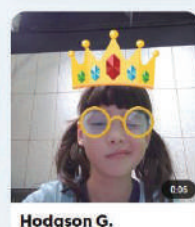
Donna H.



Man Kit H.



Nok Wa Ken T.



Hodgson G.



전 세계 어린이가 노래로 행복하게!

♥아카펠라 화음♥로 행복한 세상

글. 이성희 마케팅사업부 수석

음악시간,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주기 위해 각자의 역할과 의미를 부여해주는 선생님이 있다. 눈을 감고 소리에 귀 기울이며 화음을 조율하는 선생님의 모습에서 음악에 대한 열정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노래를 부르는 것이 곧 행복이고, 아이들이 음악 자체로 풍부한 경험을 하기를 바란다는 한승모 선생님을 '티처빌이 간다'가 만났다.

선생님은 어떻게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로부터 〈작은 연못〉 노래를 배우면서 음악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중학교 때 성가대를 시작했고, 고등학교 시절 중창단을 하면서 음악을 만드는 기쁨을 알게 되었죠. 대학에 가서 아카펠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누군가와 함께하는 재미가 더욱 커졌는데요.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가 아카펠라를 통해 집중력이 좋아지고, 착해지고, 용감해지는 등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1. 한승모 선생님이 5-1반 아이들과 함께 리코더 합주 연습을 하고 있다.



요. 아카펠라에는 사회생활 하면서 필요한 요소들이 모두 들어가 있어요. 아카펠라를 하면 화음을 맞춰야 하니가 성격이 협동적으로 바뀌고, 친구들과 다투지 않고 즐기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문화 선진국에서 아카펠라 활동을 중요한 경험으로 부각시키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음악교육은 왜 필요한가요?

인류가 일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음악을 가르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음악은 일부 계층을 위한 수단이거나 일하면서 놀면서 사용하는 것이었지만, 공교육에 음악이 들어오면서 처음에 사회교육을 위한 수단으로 쓰였어요.

음악을 통해 인내심, 집중력, 협동심, 공감 능력 등을 키워 전인적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국가교육과정 및 여러 연구에도 나와 있습니다.



약력 한승모

- 홍천 남산초등학교 교사
- 전국초등음악수업연구회 공동대표
- 아시아 아카펠라 네트워크 'Vocal Asia' 국제 교육 자문위원
- (전)한국아카펠라교육연구회 회장
- 초등학교 5~6학년 음악교과서 공저
- 2009, 2015 초등 음악교과서 공저(비상교육)
- 「어린이를 위한 음악이야기」 저자(현복스)

선생님만의 특별한 음악수업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특별한 발성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냥 애들 앞에서 제가 노래로 신나고 행복해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그리고 등·하교할 때 늘 노래를 함께 해요. 그렇게 노래가 어려운 것이 아닌 삶이자 놀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합니다. 또 반 아이들과 아침 열기, 닫는 마당을 할 때 가급적이면 매일 2곡씩 노래를 불러요. 친구 생일이거나, 특별한 손님이 오면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부릅니다. 최근 전학을 온 학생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전학 온 친구에게 '슈퍼스타' 노래를 불러 주었어요. 한 노래를 3명이 나와서 부르게 하기도 하고 모둠별로 불러보기도 하며 아이



들에게 의미부여를 해줍니다. 한 곡으로 여러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또 아이들이 집에 가서 누군가에게 불러주게 됩니다. 다양한 노래를 부르며 자기만의 노래 취향을 알게 해주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노래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나의 일상이 되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실제 음악수업은 감상, 악기, 생활화(음악회), 융합 교육 등 다양합니다. 아이들마다 음악을 이해하는 수준이 제각각 다른데요. 저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모둠별로 차별화된 수업을 진행해요. 몇 명한테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계속 무언가를 하게 합니다. 아이들과 정한 손동작 사인에 맞춰 수업을 지도하며, 서로 듣고 음악을 충분히 즐기는 기회를 많이 주려고 노력해요. 붐 웨커, 멜로디 스틱을 가지고 합주수업도 해요. 악보 없이 연습을 해서 점점 확장해나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집중해서 잘 듣고 음악을 구조화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음악을 가르치기 어려워하는 초등교사들이 어떻게 음악수업에 접근하면 좋을까요?

첫째, 멀티미디어 의존도를 확 줄여야 합니다. 음이 높거나 어렵거나 음표가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면 음높이를 맞추기 어렵고, 부분별 연습이 안 돼요. 또 멀티미디어는 빠르기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음악에서 조화로움을 배우려면 들을 수 있어야 해요. 멀티미디어 반주는 빠르기나 소리크기의 조절이 자유롭지 않아 아이들이 자신과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어려워요. 둘째, 천천히 여러 번 합니다. 음악은 여러 번 하다가 익숙해져서 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천천히 조금씩 해볼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눈높이를 낮춥니다.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전부 하지 않아도 성취기준 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모든 노래와 합주, 감상을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취기준을 알고, 학기에 한



2.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한승모 선생님.
3. 야외 놀이터 리코더 합주 수업.
4. 중국 초등학교 아카펠라 대회에 참가하는 아카펠라 동아리 학생들.


번이라도 관련 경험을 쉽고 즐겁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악을 대하는 교사의 자세입니다. 교사가 언제나 웃으면서 허용적인 분위기로 수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음악은 감정적인 교과이기 때문에 교사의 기분이 나쁘면 수업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아이들도 선생님한테 혼나거나, 기분이 안 좋으면 노래가 안 나오고, 감정 표현이 안 되는 것처럼요.

요즘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평일은 학교에만 집중하고 주말에는 아카펠라교육연구회, 초등음악수업연구회 선생님들을 만나거나 강연을 다닙니다. 별의별 아카펠라 활동을 이어가며 해마다 아이들 음반을 내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한국아카펠라교육연구회 페스티벌을 진행했고요, 이번주에는 방정환 어린이평화 노래잔치에서 아카펠라 별의별이 노래를 합니다. 7월에는 아카펠라 동아리 친구들과 중국에서 공연, 중국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아카펠라 캠프, 아시아 아카펠라 교육 포럼에 참가합니다.

선생님의 꿈 혹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노래는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누구나 말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듯이 아이들에게 노래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합창이나 아카펠라를 할 때 하는 이야기가 '존재감은 있으나 튀지 않으려 해야 한다'인데요. 그만큼 화음, 어울림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목표는 60대쯤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교장을 하든 교사를 하든, 교사를 안 하든 전 세계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아이들과 '함께 부르는 노래'를 즐겨 만들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어린이 문화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어린이의 삶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행복교실 시크릿! '하.감.미.소'

글. 양경윤 창원 안계초등학교 수석교사

“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복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교사도 학생도 모두
행복해집니다.

”

궁금하시다고요? 행복한 교실의 비밀,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집중탐구 질문으로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자, 모두 함께 그 시크릿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Q. 교실의 행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학생들은 언제 행복할까요? '놀 때.' 그렇다면 교사는 언제 행복할까요? '놀 때.' 매일 교실에서 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실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가 모두 '놀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매일 놀기만 한다면 학생과 교사 모두가 진정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교실에서 놀이와 같은 배움의 즐거움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배움은 깊어지는 데 진짜 노는 것처럼 즐거워지는 것,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복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교사도 학생도 모두 행복해집니다. 이때 행복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하** 하브루타 질문수업으로 배움을 이끌고
- 감** 감사하고
- 미** 미덕의 언어로 말하며
- 소** 소통하는 학급

Q. 학생과 교사가 모두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나요?

학생들이 잘 배울 때 교사는 행복해집니다. 학생들 역시 배움이 즐거워야 행복해 집니다. 어떻게 하면 양쪽 다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하.감.미.소’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행복교실의 시크릿! 바로 ‘하.감.미.소’입니다.

그 시크릿의 첫 번째는 ‘하브루타 질문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배움이 즐거워지도록 하는 수업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교실에서 교사가 사용해야 할 언어는 ‘고마워’입니다. 학생들의 성장에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감사함을 표현할 때, 학생들은 마음의 평온함과 함께 성장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교실의 언어를 ‘미덕의 언어’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언어에는 힘이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미덕의 언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생각변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학급으로 바뀌게 됩니다.



약력 양경윤

- 현 창원 안계초등학교 수석교사
- 티처빌 <학습대화, 질문이 살아 있는 교실이야기> 원격직무연수 강사
- 저서 『하브루타 질문수업에 다시 질문하다』, 『하브루타 질문수업』, 『교실이 살아있는 질문수업』, 『한줄의 기적, 감사일기』

Q. ‘하.감.미.소’가 어떤 힘을 가졌길래 행복교실이 가능해지는 것일까요?

『의식 혁명』의 저자 데이비드 호킨스는 물리적인 자극과 정신적인 자극으로 근육이 강화되거나 약화된다는 근육테스트를 통해 인간의 의식 수준을 분석했습니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의식수준을 FORCE와 POWER를 위력과 참된 힘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감.미.소’로 이루어지는 교실은 참된 힘, POWER를 발휘하게 됩니다. 힘은 우리의 높은 본성에 호소하고 위력은 낮은 본성에 호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위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힘에는 한계가 없다고 합니다. 위력, FORCE가 강한 교실에서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고, 편의를 위해서 자유를 팔아넘기며, 빠르고 쉬운 해결책을 제공해주지만 결국 문제를 일으키고 맙니다. 그러나 참된 힘, POWER를 가진 교실에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성숙함과 규율, 인내를 필요로 하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교실 전체가 POWER 에너지를 가지게 되어 행복



한 교실로 전환이 됩니다.

‘하.감.미.소’는 문제 학생을 바라보는 교사의 시선을 바꾸어줄 뿐만 아니라 교실을 교사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학급 친구들이 모두 함께 어우러지는 긍정의 POWER 에너지입니다.

Q. POWER 에너지가 가득 찬 교실을 위해 ‘하.감.미.소’의 구체적 실천 방법을 어떻게 되나요?

짝이동으로 이루어지는 질문과 대화의 수업

학생 스스로의 질문은 자신의 삶에 선택권을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찾아낸 질문이 있을 때 배움은 시작됩니다. 그 배움의 시작을 짝과 함께합니다. 또한 짝이동 활동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를 배울 수 있는 상호 소통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수업이 학생들의 질문과 대화, 다양한 짝이동 활동만으로도 상호 작용은 극대화가 되고 학습력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교사의 ‘고마워’ 한마디

‘잘했어, 널 믿어, 멋지구나, 감동이야, 똑똑하구나’ 등 많은 칭찬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의 ‘고마워’ 한 마디와는 다른 관점의 단어입니다. 위의 칭찬의 말들은 교사와 학생의 수직적 관계에서 전달되는 의미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마워’는 교사와 학생을 수평적 관계에서 만나게 해주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맙다’는 상대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제공해줄 때 감사함을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고마워’는 교사가 POWER, 참된 힘을 가지게 도와주는 단어입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밝은 의식의 빛을 주게 됨으로써 행복한 교실을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또한 감사하는 태도는 세상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당연하다는 것은 없고 그저 감사한 것이 많은 세상에서 학생들은 스스로의 마음의 평온과 위안을 받게 됩니다.

미덕의 언어로 말하라

예일대 사회심리학자 존 바그 교수에 따르면 보이지 않는 언어의 힘은 너무도 강력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특정 단어의 자극에 노출되면 뇌의 어느 부분이 행동할 준비를 합니

“

행복교실은 미덕의 언어가
뿌려지고, 감사의 마음이
뿌려져서 교실에 행복을
자라게 도와줍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교실의
시크릿입니다.

”





다. 특정 단어의 의미에 따라 뇌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움직인다’라는 동사를 읽으면 뇌는 무의식적으로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매일 내뱉는 말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데도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아무 말이나 막 뱉으면서 살아갑니다.

교사와 학생이 미덕의 언어로 말하면 이러한 언어의 힘을 제대로 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사랑·겸손·봉사·유연성·청결·이상·관용·사려·인내 등 베횚프로젝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52가지의 덕목 이외에도 우리가 살면서 지켜가야 할 미덕을 상호 간에 표현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됩니다.

소통하는 행복교실

미덕의 언어로 말하며, 서로가 감사함을 표현하는 교실, 더불어 학생 스스로 질문하고 배움을 만들어가는 수업, 이것이 바로 소통하는 교실의 모습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처럼 행복교실은 미덕의 언어가 뿌려지고, 감사의 마음이 뿌려져서 교실에 행복을 자라게 도와줍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교실의 시크릿입니다.

Q. ‘하.감.미.소’로 교사와 학생은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행복해졌을까요?

‘하.감.미.소’는 학생들의 행복을 위한 과정이지만 실제로 교사가 더 많은 힐링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이 배움 속에 깊이 빠져들고, 긍정적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교사 역시 행복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의 따스한 POWER 에너지는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던 아이들의 변화에 도움을 줍니다. 6학년이 될 때까지 늘 문제를 일으키던 아이, 주변의 따가운 시선들을 하루아침에 변화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어둠 속에 있다가 갑자기 빛에 노출되면 눈이 부셔서 힘들고 싫은 것처럼 교사의 POWER 에너지가 처음에는 상황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밝은 빛은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를 따스하게 비춰주기에 긍정적 변화를 불러옵니다. 3월 첫달은 선생님이 밝은 목소리로 먼저 인사해도 인사도 받지 않던 아이가 4월이 되니 얼굴을 마주 봐주고, 5월이 되니 밝은 목소리로 먼저 인사를 건네고 손도 흔들어주는 아이로 변화했습니다. 짝이동을 통해 만난 다양한 친구들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서로가 서로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있는 아이들로 성숙해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짝을 통해 관점이 다양해지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배움의 열기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외적인 힘도 필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 내면에 강력한 POWER 에너지로 가득 채울 때 교실은 행복해집니다. ‘하.감.미.소’가 진정한 힘, POWER 에너지를 전해줄 겁니다. 행복교실의 시크릿! ‘하.감.미.소’로 시작해보지 않겠습니까? **T**

테크빌교육 티처빌, 빅데이터·AI 기반 개인화 추천 서비스 도입



에듀테크 기업 테크빌교육의 교사 지원 통합 플랫폼 '티처빌'은 원격교육연수원 최초로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의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티처빌이 제공하는 개인화 추천 서비스는 티처빌연수원사이트에 방문한 선생님의 클릭, 장바구니 담기, 구매이력과 같은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맞춤형 콘텐츠를 제안하는 방식이다. 선생님들이 시기 별로 선호하는 연수, 도서, 교구 등을 빅데이터 분석으로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안내 문구와 함께 제공한다. 더불어학교급, 소속 교육청, 담당 교과, 연령대가 비슷한 선생님들이 자주 구매하는 인기 콘텐츠를 선정해 동료 선생님들에게 추천한다.

티처빌을 방문하는 모든 선생님들은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통해 서로 다른 개인화 페이지를 만나게 된다. 최소한의 클릭만으로 편리하게 자신의 관심사와 역량 개발을 위한 최적의 맞춤형 콘텐츠를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향후 티처빌은 교사의 생애주기와 연계해 단계별 최적의 가치를 제공하는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키워 나갈 계획이다.

김지혜 테크빌교육 티처빌 사업부문상무는 “54만명의 티처빌 회원이 그 동안 생성한 4300만건의 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생님 한 분 한 분께 맞춤형 콘텐츠를 제안드린다”면서 “앞으로 교사의 학습과 편의성에 초점을 맞춰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콘텐츠와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현상철 기자

아시아투데이 (2019.03.20)

“VR로 자동차 정비훈련 했어요”…한양공고에 설치된 실감교육 전용교실



자동차 관련 자격증 시험을 앞둔 서울 한양공업고등학교 재학생 A군은 최근 가상 현실(VR) 기기를 통해 수업 시간에 배운 자동차 부품을 눈으로 익히고 있다. 책으로만 익혔던 자동차 부품에 대한 지식을 VR기기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환경적인 제약 없이 마음껏 자동차 관련 실습을 할 수 있게 됐다

20일 교육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테크빌교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양공고에 ‘자동차엔진 정비 훈련 콘텐츠 개발 및 실감교육 전용교실’을 구축했다. 한양공고는 한 학급에 20~24명이 실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자재를

활용한 실습과 VR 실습으로 각각 구성해 순환 실습이 가능한 전용실습 교육장을 구축했다. 전용실습 교육장에서는 최대 10~15명의 학생이 실습을 할 수 있으며, 직접 체험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참관 실습과 스마트패드를 활용한 사전 실습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엔진 정비 실습은 총 6개 주제로 분류돼 운영된다. 학생들은 난이도에 따라 초급·중급·고급 과정으로 나눠 실습할 수 있고, 학생의 이해도에 맞춰 다양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콘텐츠가 갖춰져 있다.

실제 A군은 “개인별 수준에 맞는 수업과 실습을 할 수 있어 어떤 부분에 대한 수업이 부족했는지 알 수 있었다”며 “처음부터 실습을 하게 되면 기계작동 미숙으로 다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이런 우려도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VR·AR·홀로그램 등이 대표적인 실감형 콘텐츠로, 최근에는 이 같은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이 교육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또 다양한 콘텐츠를 VR기기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김범주 기자(세종)

매일일보 (2019.03.21)

지금까지 없었던 ‘메이커 교육’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다수의 교육감 신년사에서 ‘메이커’라는 키워드가 포함됐다.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메이커 교육을 강화하고,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체험중심의 미래 교육 환경인 메이커 스페이스를 갖추겠다는 내용이다.

사람은 두 손을 써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존재란 점에서 다른 동물과 구분되기도 해 ‘호모 파베르(만드는 인간)’란 개념이 쓰이기도 한다. 스스로 뭔가 만들어내는 행동은 인간이 처음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유전자에 축적돼온 정보라고 할 수 있다.

‘호모 사피엔스(지적 인간)’와 ‘호모 루덴스(유희적 인간)’라는 특질과 같이 보면, 결국 인간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과정을 유희적으로 즐기는 세 가지 고유의 특성이 통합적으로 구현되는 것이 메이커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교육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듯 메이커 교육은 메이커를 길러내는 것이 아니다. 또한, 메이커 교육은 3D 프린터 활용법을 교육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메이커 교육은 무엇일까. 아이들이 자신의 상상을 구체화할 수 있게 하고, 이것을 실제로 만들어 현실에 구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안내하고 도와주는 교육이다. 아이들 상상의 동기가 해결하고 싶은 현실의 문제라면 이것은 문제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이 되는 것이다.

무언가를 만들며 실패하는 경험, 성공하는 경험, 결과가 단계적으로 개선되는 경험들을 쌓게 된다면 이것은 경험에 의해 개인의 주관적인 지식을 구성하게 되는 구성주의 교육철학과 부합한다. 또한, 아이들이 모둠을 이뤄 함께 아이디어를 모으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액션러닝이 된다.

박기현 테크빌교육 부사장(겸 에듀테크 연구소장)

뉴스토마토 (2019.04.01)

테크빌교육 티처몰, ‘독립영웅 10인’ 종이공작 출시



테크빌교육의 교육전문 쇼핑몰 티처몰은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독립영웅 10인’ 종이공작 상품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티처몰은 인천 검단고 문종배 미술교사와 함께 잊어서는 안될 독립영웅 10인을 선정해 종이공작 교구로 제작했다. 독립영웅 10인은 국가보훈처의 2019년 ‘이달의 독립운동가’ 후보 48명 가운데 종이공작 특성상 입체로 만들었을 때 특징이 표현될 수 있는 인물로 구성했다. 김구, 김좌진, 박차정, 신채호, 안경신, 안중근, 안창호, 유관순, 윤봉길, 윤동주 중심의 독립영웅

10인 종이공작은 학교나 집에서 역사와 연계한 미술교육으로 융합수업이 가능하다. 수업지도안과 만들기 동영상은 상세 페이지에 함께 제공된다. 이번 캠페인은 ‘독립영웅이 다시 한번 나라를 구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학생들에게 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티처몰은 문종배 교사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상품을 기획한 문종배 교사는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수업시간에 같이 시청한 후 독립운동 10인 종이공작을 개인별, 조별로 만들어보는 체험을 하면, 미처 몰랐던 독립영웅들을 알게 되고 업적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교육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지혜 티처빌사업부문 상무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100년 전 그날을 기리기 위해 관련 영상을 찾아보고, 독립운동가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며 “역사란 기억하지 않으면 희미해질 수도 있는 만큼 앞으로 지속해서 계기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우찬 기자

테크빌교육 - 중국 '체리픽스, SW교육 제품 공급계약 체결



에듀테크 기업 테크빌교육이 중국 게임기업 넷드래곤의 교육 자회사인 체리픽스와 SW 교육사업을 위한 제품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컴퓨팅 사고력을 위한 종합 학습 솔루션인 체리픽스의 '코딩 갤럭시(Coding Galaxy)'를 국내 교육 환경에 맞게 로컬라이징을 진행한다. 테크빌교육은 자사의 학생교육 브랜드인 즐거운학교를 통해 SW융합 메이커 교육을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코딩 갤럭시' 교재를 한글화하고 차시별 수업계획서, 워크시트, 보충교재 등을 개발하여 일선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코딩 갤럭시'는 엔트리, 마인크래프트처럼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SW코딩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게임 기반의 학습 플랫폼이다.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컴퓨팅 사고력과 프로그래밍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활동과 자료를 구비하고 있다. 학생들은 협업 게임으로 자신이 속한 팀의 공통 문제를 해결하면서 의사소통 능력과 리더십을 키울 수 있으며, 교사는 학습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학생들의 진도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성수 테크빌교육 융합교육사업부 이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M:EE 파트너십, BBC의 마이크로비트 공식 판매점에 이어 이번 계약으로 SW 교육사업을 위한 네트워크가 한층 더 강화됐다"며 "국내 여러 SW교육 교구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융합교육의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Vincent Cheng 체리픽스 코딩 갤럭시 총괄 매니저는 "한국에 코딩 갤럭시를 알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테크빌교육과 손잡고 코딩 갤럭시의 체계적인 SW 커리큘럼을 단계별로 구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강인귀 기자

전자신문 (2019.05.28)

[주니어 메이커 되기]〈4〉매커니컬한즈 키트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고 21일은 과학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은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날입니다. 동시에 장애인에게는 재활 의지를 높이기 위한 날입니다. 과학의 날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또 우리 생활의 과학화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날이지요. 과학기술로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높여주기 위해 무엇인가 발명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난달 많은 친구가 학교에서 두 날을 기념하여 '매커니컬 한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매커니컬 한즈가 뭐냐고요? 쉽게 풀이하자면, 바로 기계 손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무언가 발명할 때 사람 몸이나 생각하는 체계, 자연 현상과 같이 이미 있는 것을 많이 응용하게 됩니다. 우리 몸이 관절과 근육 등이 함께 동작해서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듯이 이 모습을 잘 관찰해 비슷한 구조를 만들면, 손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손을 대신 만들어줄 수도 있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우리 손이 물건을 집어 올리거나 손가락을 움직이는 동작의 원리를 이해하고 구현해보면 어떨까요?

우선, 한쪽 손바닥을 째 펴봅시다. 다른 손으로 손목을 살포시 쥐고 다시 손가락을 하나씩 접었다 펴 보세요. 손목을 잡고 있고 손가락을 움직이는데도 손목 안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지나요? 꿈틀꿈틀 근육은 서로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손가락을 움직여도 손목 근육이 함께 움직여지지요. 만약 손목에 힘을 줄 수 없다면 손가락도 힘을 쓸 수 없을 거예요. 마치 손목 근육이 손가락 근육을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이지요. 그리고 손가락뼈는 구부러졌다 펴 수 있는 관절도 있지요. 뼈가 막대기처럼 일자로 이어져 있다면 구부릴 수 없을 겁니다.

자료=이효진 테크빌교육 융합교육사업부 수석연구원

2019년 티처빌연수원 하반기 학사 일정

기수	학점	연수시작일	연수종료일	출석고사	이수증발급
5기	4학점	06월 05일	07월 09일	07월 06일	07월 12일
	3학점	06월 05일	07월 02일	-	07월 04일
		06월 19일	07월 16일		07월 18일
	2학점	06월 05일	06월 25일		06월 27일
		06월 19일	07월 09일		07월 11일
	1학점	06월 05일	06월 18일		06월 19일
		06월 19일	07월 02일		07월 03일
6기 여름방학	4학점	07월 17일	08월 27일	08월 24일	08월 30일
	3학점	07월 03일	07월 30일	-	08월 01일
		07월 17일	08월 13일		08월 16일
		07월 31일	08월 27일		08월 29일
	2학점	07월 03일	07월 23일		07월 25일
		07월 17일	08월 06일		08월 08일
		07월 31일	08월 20일		08월 22일
		08월 07일	08월 27일		08월 29일
	1학점	07월 03일	07월 16일		07월 17일
		07월 17일	07월 30일		07월 31일
		07월 31일	08월 13일		08월 14일
		08월 14일	08월 27일		08월 28일
7기	4학점	09월 11일	10월 22일	10월 19일	10월 25일
	3학점	09월 04일	10월 08일	-	10월 11일
		09월 18일	10월 22일		10월 24일
	2학점	09월 04일	10월 01일		10월 03일
		09월 18일	10월 15일		10월 17일
	1학점	09월 04일	09월 24일		09월 25일
		09월 18일	10월 08일		10월 09일

※ 출석 고사는 4학점 연수에만 진행 ※ 연수 신청은 시작일 두 달 전부터 가능

2019년 티처빌 신규과정 Coming Soon

그 어떤 연고보다 빠르고
정확한 치유제 “공감”

2학점

정혜신의 적정심리학. 당신이 옳다



정혜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강의 개요

“지금, 선생님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본 과정을 통해 학생과의 관계 형성이 어려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공감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며,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실제로 고민하는 부분에 공감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학급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강의 특징

- 학생과의 관계 형성이 어려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공감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강의.
- 정신과 의사나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에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법 안내.



강의 개요

올바른 학급운영은 모든 학교급의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요건임과 동시에 가장 큰 숙제입니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이 많은 유치원, 어린이 집에서는 고경력 교사들조차 당황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본 연수는 유아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고충과 이를 해결할 노하우를 현장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담아냈습니다.

강의 특징

- 딱딱한 이론 위주가 아니라 현장교사들이 학급운영에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팁들만을 모아 생동감이 넘치는 강의.
- 유아 학급운영을 고민하는 예비, 신규교사들의 문제해결 기술 배양.
- 당연시했던 지도방법 또한 다시 생각해봄으로써 학급운영시스템을 재정비하려는 경력교사의 성장 지원.



2020년 개정 누리과정 대비 과정

2학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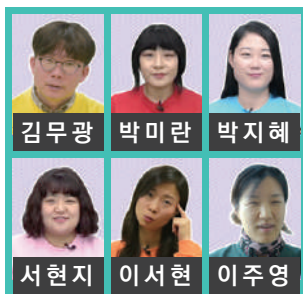
행복한 두드림. 유아 학급솔루션 - 만 3~5세 학급운영. 어떻게 할까?



많은 선생님들께서 기다리신 보드게임 2편!

2학점

보드게임으로 즐거운 수업 행복한 교실 2



강의 개요

이미 많은 선생님들께서 '보드게임으로 즐거운 수업 행복한 교실' 연수로 보드게임을 만나셨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보드게임으로 2편이 돌아옵니다. 1편보다 업그레이드된 본 연수와 함께 즐거운 수업,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보세요.

강의 특징

- 수업에 활용 가능한 보드게임의 규칙과 수업 설계 tip 제공.
- 보드게임을 통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배양.



입시전문가 박권우의 '눈'을 믿어라!

1학점

2020대입 지원 전략!
수박 먹고
대학 간다(대학편)

박 권 우

『수박 먹고 대학 간다』 저자, 이화여대 부속고등학교 입시전략실장

강의 개요

대학은 많고, 대학별 전형의 특성과 인재상의 요건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본 과정은 한정된 시간 동안 효율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경기·지방 국공립 총 30개 주요 대학의 전형방법을 분석해 학생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하도록 기획된 직무연수로, 정보의 홍수 속에 막막해하는 대입 지도 교사들의 혼란을 해소해주는 입시지도의 바이블입니다.

강의 특징

- 주요 대학의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증감 및 변화를 빠르게 살펴보는 '한 눈에 보는 전형분석'.
- 2020년 최신 대입 전형자료를 정리 하여 명쾌한 입시 가이드를 제시.



강의 개요

학교에서 수업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 학교 교육에 있어서 가르치고 배우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풀어나가는 수업 방해 해결 방법을 소개합니다. 수업 방해로 인해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고민하고 이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강의 특징

- 현직 선생님들이 전하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 수업 방해에 대한 예방법부터 해결책까지 모든 노하우 전격 대공개.
- 교실에서 변함없이 본을 보임으로써 가르치는 어른으로 남고 싶은 교사를 위한 강의.



수업 방해로부터 교실을 지켜라!

2학점

교사와 학생이 함께
풀어 가는 수업 방해

안 태 일 김 차 명 정 영 찬



유 철 민 이 인 지 김 태 범

실내 체육 해결사와 함께하는 실내 체육 수업 노하우!

2학점

교사와 학생 모두 행복한
실내 체육 수업

송 성 근

배곧누리초등학교 선생님

이 두 형

인천용현남초등학교 선생님

성 기 백

서울동구로초등학교 선생님

강의 개요

학생들의 체력 저하로 인한 학교체육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미세먼지·폭염·폭우 등 다양한 환경적 요소로 인해 아이들은 점점 운동장에서 시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체육관이나 실내에서도 학생들에게 체육 과목의 가치와 다양한 체력을 기르는 방법을 제시하고 모두가 평등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 수업의 틀을 제공합니다.

강의 특징

- 다양한 뉴스포츠를 통해 기능과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는 방법 제공.
- 학교현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교구를 활용해 다채롭고 의미 있는 체육 수업 구현.



[2019 티처빌, 개원 17주년 기념행사]



티처빌, 교사를 ‘잇다’ 네트워킹데이 성료

글. 이성희 마케팅사업부 수석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게 하다.”

“바로 다음에 잇대다.”

“끝을 맞대어 붙여 하나로 만든다.”

23개 교사연구회 소속 150여 현장 교사 참가

티처빌연수원은 개원 17주년을 맞아 지난 5월 18일 서울 역삼동 파크루안에서 23개의 교사연구회와 다양한 분야의 현장교사들을 초대해 네트워킹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네트워킹 행사는 최근 학교교육 현장에서 집단지성, 팀워크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사 학습 공동체 또는 교사연구회가 증가함에 따라 영향력 있는 교사 모임을 연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에는 사람과 교육연구소, 교육디자인 네트워크, 참쌤스쿨, 스텝매직, 놀이위키, 인디스쿨, 몽당분필, 에듀콜라, 고래학교, 같이교육, 실천교사, 유선생 아카데미 등 23개 교사연구회에 소속된 150여 명의 현장 교사들이 모여 수업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배우는 교류의 장을 펼쳤다.



1. 따뜻한 감동을 전한 최혜경
수석교사의 '동행' 강연.
2. 사전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는 선생님.
3. 티처빌이 준비한 교사 개인별 명함을
받아 이벤트에 응모하고 있다.
4. 초등교사 힙합 그룹
'굳:이'(Good Education)의 오프닝 공연.
5. 마음을 움직이는 세 사람 도서관 게임을
통해 인사 나누는 선생님들.

랩·강연·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

첫 오프닝 무대에서 초등교사 힙합 그룹 '굳:이'(Good Education)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겪는 이야기를 랩으로 풀어내 선생님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티처빌 사업을 총괄하는 김지혜 상무가 나와 교사 지원 통합 플랫폼으로서의 '티처빌' 서비스를 소개하고 향후 티처빌이 걸어갈 길에 대해 발표했다.

정년을 4년 남긴 최혜경 수석교사는 '동행'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동료 교사들로부터 뜨거운 호응과 큰 울림을 선사했다. 특히 그는 최근 진행한 공개수업 사례를 소개하면서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소 엉뚱한 질문이 나와도 이해의 속도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이 동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행사에 참석한 23개의 교사연구회 소개에 이어 마음을 움직이는 세 사람 도서관 게임이 진행됐다. 자신을 나타내는 3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세 사람씩 짝을 지어 상대방의 단어를 보고 질문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행사장 뒤편에 마련된 홍보 부스에도 많은 관심 쏠려

사회를 맡은 김택수 스태프매직 소속 교사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어질 수 있는 것 같다"며, 교사 네트워킹 행사를 마련해준 티처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최선경 고래학교 소속 교사는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어 너무 좋았다"며, "최 수석님의 수업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수업시간에 좀 더 집중해서 학생들을 관찰하고 아이들의 대화에 귀 기울여야겠다는 반성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서는 교사 간 친목도모를 위한 각종 이벤트가 열렸으며, 행사장 뒤편에 마련된 티처빌, 즐거운학교, 쌤들네, 테크빌교육 출판, SW·메이커 융합교육 홍보 부스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다. ①

인공지능과 앱만 있으면 영어 OK라고요?

해외여행의 풍미를 더해주는 초간단 ‘영어회화’

글. 허준석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 파견교사



하와이의 빅 아일랜드의 화산 공원 가는 길에 찍은 사진.

안녕하세요? 15년차 영어교사이자 영어교육 유튜버인 ‘혼공쌤’ 허준석입니다. 올 1월, 두 아들이 조금 크자마자, 결혼 10주년 가족여행으로 꿈에도 그리던 하와이를 다녀왔습니다. 17박18일의 자유여행. 영어 전공자라는 이유만으로 일정을 짜고 가족을 위해 현지 통역을 도맡아 했는데, 실전 영어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숙소 공사로 인한 컴플레인, 갑자기 조기귀국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한 렌터카, 숙소, 항공편 변경 건은 등에 진땀을 나게 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었기에, 그날을 추억하며 선생님들과 여행 시 알아두면 요긴한 상황별 영어 표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여행의 풍미를 더해주는 영어표현 |

1

생각보다 일찍 숙소에 도착했을 때

“일찍 체크인 가능한가요?”

정식 표현 Do you allow early check-in?
두 유 얼라우 얼리 체킨?

생존 표현 Early check-in?
얼리 체킨?

생각보다 일찍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혹시 일찍 체크인 할 수 있냐?”고 물어볼 때 쓰면 됩니다. 전체 문장을 외우기 힘들다면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서 몹시 힘든 표정을 지으면서 “얼리 체킨?”이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Check’에 강세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만약 남는 방이 없다고 한다면, 다음 표현을 써보세요.

“짐을 맡아주실 수 있나요?”

정식 표현 Can you hold my luggage?
캔 유 호울 마이 러기쥐?

생존 표현 Hold my luggage?
호울 마이 러기쥐?

hold라는 동사를 쓰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표현만 알면 무척 간단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손짓발짓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표현을 쓰고 나면 호텔 직원이 한쪽으로 짐을 운반하면서 나중에 짐을 찾을 수 있도록 바우처 등을 제공합니다.

2

식당을 추천받고 싶을 때

“여기 지역 사람들이 가는 좋은 식당을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정식 표현 Can you recommend good restaurants that locals go to?
캔 유 레커멘 굿 레스토랑츠 댓 로우컬즈 고우 투?

생존 표현 Please recommend restaurants locals go to.
플리즈 레커멘 레스토랑츠 로우컬즈 고우 투.

물론 녹색창 블로그에 검색해도 지역 식당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이 없다면 한국을 떠나 또 다른 ‘작은 한국’을 외국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싫다면 여행지에서 정보를 얻어서 방문하는 것도 괜찮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혼공샘의 생생한 하와이 이야기가 궁금하면 아래 QR코드로 들어오세요.





만약에 지역 음식만 먹다가 한국 음식이 그리워진다면, 인터넷 검색을 하는 것도 좋지만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한번 써볼 것을 권합니다. 영어도 자주 쓰다보면 자동화 되는 표현들이 생겨납니다.

“근처에 한국 식당이 있나요?”

정식 표현 Are there any Korean restaurants nearby?

아 데얼 에니 코리아 레스토랑즈 니얼바이?

생존 표현 Korean restaurants nearby?

코리아 레스토랑즈 니얼바이?

저는 처음에 한 달 정도 생각하고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식비를 절약하기 위해 부엌이 있는 숙소에서 머물렀습니다. 아침은 시리얼과 과일, 한국에서 싸서 간 누룽지와 참치 등을 먹었고 점심과 저녁은 현지 식으로 먹었습니다. 10일 정도 지나니까 한국 음식이 생각나서 해당 표현을 썼습니다. 앱이나 인터넷을 검색해도 충분히 정보가 나오지만 아빠가 영어를 쓰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노출하는 것 자체가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아후에서 일정을 보내고, 빅 아일랜드에 들어가서 예약했던 차량을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3

차량 인도를 할 때

“차에 내비게이션이 같이 나오나요?”

정식 표현 Does the car come out with GPS?

더즈 더 카 컴 아웃 윗 지피에스?

생존 표현 The car with GPS?

더 카 윗 지피에스?

내비게이션은 빌리지 않아도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구글 맵'만 활용해도 훌륭한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참고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 'GPS'라고 하면 됩니다. 여행하다가 한국 관광객을 만났는데, 내비게이션을 \$50 이상 주고 빌리셨다고 했습니다. 스마트폰과 데이터만 충분하면 내비게이션 렌탈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4

컴플레인을 해야 할 때

“계산서에 실수가 있어요.”

정식 표현 There is a mistake in the bill.

데어 이즈 어 미스테인크 인 더 빌.

생존 표현 Mistake in the bill.

미스테인크 인 더 빌.

간혹 계산서에 실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취소한 것을 빼지 않아서 다소 과도하게 청구된 경우 이 표현을 쓰고, 계산서의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가리키면 됩니다.



“사람 좀 올려 보내주시겠어요?”

정식 표현 Can you send someone up?

캔 유 샌드 섬원 업?

생존 표현 Please send someone up.

프리즈 샌드 섬원 업.

숙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에서 방안의 전자레인지 문제, 세면대가 막힌 상황, 요청해야만 주는 어메니티, 예고되지 않은 위층의 공사 소음 등 부득이하게 요청이나 컴플레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창한 영어보다는 문제 상황을 간단하게 표현하고, 마무리로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아주 편리했습니다.



AI의 시대, 아직까지 여행은 우리의 체온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인공지능과 앱의 발달로 영어 공부야 필요없다”고 합니다. 여행하기 너무나 편리한 시대라고도 합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잠시라도 현지 사람과 눈을 마주 보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의 체온을 느낄 수 있고, 여행 후에도 그 순간이 오랫동안 기억납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영어를 잘하느냐보다 얼마나 소통하려고 애쓰는지가 또 하나의 여행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들 즐거운 방학 보내세요!



선생님의 이중생활, 요리를 맛보실래요?

글. 안혜선 서울전농초등학교 선생님

몇 년 전부터 스태프들이 수시로 방송에 출연하면서 초등학생 선호 직업 1위가 '요리사' 였던 적이 있습니다. 멋진 조리복을 입은 셰프들이 요기에 가까운 현란한 솜씨를 발휘해 근사한 요리를 만들 때마다 방청객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조리복을 깔끔하게 입고 비장하게 식칼을 들고 팬 앞에 선 나를 발견합니다. 취미로 시작했다가 판 이 커진 요리 이야기, 지금 맛보실래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완벽한 독립!(선생님의 이중생활, 요리를 시작하다)

5년 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을 하고 난 후, 부모님으로부터의 완벽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아늑한 나만의 공간,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은 임용 합격 소식만 큼이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사건이었습니다. 학창 시절 학업에만 집중하라며 가사노동(?)의 부담을 지어주지 않던 어머니께 감사한 일이었으나, 한편 가보지 못한 길(=요리)에 대한 갈증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 제게도 드디어 마음껏 나를 위한 요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어떤 음식을 해볼까 부푼 마음에 포털사이트의 요리 관련 포스팅을 검색하고 마트에서 장 바꾸니 한가득 식재료를 담아옵니다. 조리법대로 천천히 따라했더니 생각보다 그럴싸한 요리 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요리를 하나씩 따라 해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SNS에 음식 사진을 찍어 올려 칭찬의 댓글에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흰 조리복과 조리모를 쓴 안 셰프(자격증을 손에 쥐다)

계속해서 자신을 위한 음식을 만들고 사람들과 음식 사진을 공유하며 마음속에는 '요리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눈에 들어온 것이 '조리기능사 자격증'이었고, 그렇게 요리학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겨울방학 특강으로 등록된, 한식조리기능사 양 식조리기능사 자격증반 수업.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연강으로, 매일 다섯 시간의 요리수 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의 특성상 요리 '기능'을 평가하는 것보다보니 생각만큼 쉬 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제시되는 두 가지 과제, 53가지의 한식 조리법/33가지 양 식 조리법을 순서대로 외워 감독관 앞에서 능숙하게 수행해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양파'라는 재료가 나오면, 어떤 음식에는 양파를 다져서 소금물에 넣어두었다 쓴맛을 없애 사용해야 하고, 어떤 음식에는 2cm로 재단해 볶아 사용해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석이버섯'을 물에 불려 채 썰어 참기름과 소금 간으로 볶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볶지 않고 생으로 올려야 하는 음식. 기본 양념으로 자주 등장하는 '참깨'를 사용하면 실격되는 음식. 제시된 규격 '4×1.5cm'로 정



약력 안혜선

- 서울전농초등학교 교사(5년차)
- 티처빌 초등자문단
- 교육과학기술부 대표블로그 기자단



확히 잘라야 하는 음식. 흰 지단, 노란 지단, 실고추, 소고기, 석이버섯, 잣 등 여섯 가지 고명을 올려 제출해야 하는 음식. 연습할 때는 할 만했던 요리들이 조리대 앞에서 흰 조리복 차림으로 시험 메뉴를 받아드는 순간, 머릿속에서 53가지의 조리법과 33가지의 조리법이 서로 회오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고배를 마시다가 지난 5월초, 드디어 양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손에 쥐게 되었을 때의 감동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칼 쥐는 것 자체로도 너무 떨렸던 시간, 질끈 감기는 눈을 다시 뜨고 능숙한 척 표정관리를 하며 닭을 발골하고 가지미 포를 뜯 때면 왠지 노련한 주부가 된 것 같은 기분까지 들었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취미생활, 일과 여가의 간을 맞추는 훌륭한 조미료

교사가 되고 나서 첫 1, 2년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따라가기에 혼이 쏙 나가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을 쏙 빼고 난 퇴근길에, 내게 주어지는 시간을 잘 활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던 것도 그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나만의 취미생활을 찾는 것은 일도 여가도 더욱 흥이 나게 한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선생님들도 눈을 크게 뜨고 찾고, 새로운 취미생활에 몸을 던져보세요. 일과 여가의 간을 맞추는 훌륭한 조미료로 인해 출근길이 더욱 즐거워지고 생활에 활기가 생길 거예요.

선생님들께 추천하는 간단한 레시피!

더운 여름철 '비빔국수' 어떠세요?

재료 소면 1인분, 김치 1/2C, 고추장 1T, 고춧가루 0.5T, 간장 1T, 설탕 1T, 매실액 1T, 참기름, 통깨, 집에 있는 채소들, 달걀

- 방법**
1. 냄비에 물을 넉넉히 넣고 소금을 조금 넣어 소면을 끓인다.
 2. 물이 파르르 올라오면 찬물을 끼얹고, 또 물이 파르르 올라오면 찬물을 끼얹은 뒤 체에 소면을 담아 찬물로 씻어준다.
 3. 물이 끓으면 달걀을 6~7분간 삶아 반숙 달걀을 만들어 2 등분한다.
 4. 양념장을 잘 섞어 삶은 소면 위에 올리고, 삶은 달걀과 각종 채소, 얼음을 넣고 완성!



지친 선생님을 위한 아삭한 힐링 음식 '쌈무말이'

재료 쌈무, 무순, 파프리카, 맛살, 햄 또는 닭가슴살, 곁들일 소스

- 방법**
1. 쌈무는 물기를 제거한다.
 2. 파프리카는 먹기 좋은 너비로 썰어 준비한다.
 3. 햄은 끓는 물에 데쳐 준비한다.
 4. 잘 씻은 무순과 각종 속재료(파프리카, 맛살, 햄, 닭가슴살 등)를 넣고 포갠다.(미나리나 부추를 살짝 데쳐 묶어 주어도 좋아요)
 5. 소스를 곁들이면 완성!



프로훈방러들을 위한 간단한 한 끼 '타마고산도'

재료 달걀 5개, 우유, 설탕, 소금, 찰유소스, 식빵 2장, 홀그레인머스타드소스, 버터, 와사비+마요네즈

- 방법**
1. 달걀 5개, 우유 2T, 찰유 2T를 잘 섞어준 뒤, 체에 한 번 걸러주고 소금 두꼬집, 설탕 한 스푼 넣고 다시 섞는다.
 2. 식빵은 가장자리를 잘라 부드러운 부분만 준비한다.
 3. 약한 불로 기름을 살짝 둘러 키친타올로 닦아 코팅하고, 달걀물을 조금씩 부어준다.
 4. 달걀말이 하듯이 네모나게 두툼하게 접어 말아준다.
 5. 식빵 한쪽엔 홀그레인머스타드소스, 한쪽엔 와사비+마요네즈소스를 발라준다.
 6. 빵 사이에 달걀말이를 넣어주고 반을 잘라내면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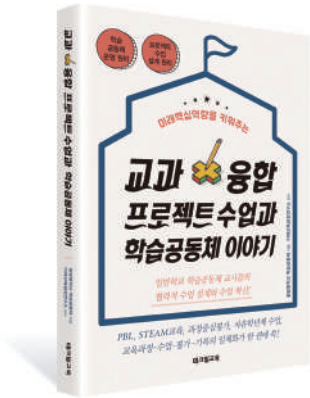
아이들도 좋아하는 '칠리새우'

재료 카테일새우 1C, 다진마늘 1T, 버터 1조각, 식용유 2T, 후추, 맛술

소스 케첩 2T, 고춧가루 1T, 설탕 1T, 간장 1T, 식초 1T, 물 약간

- 방법**
1. 냉동새우는 물에 넣고 해동시켜주세요.
 2. 칠리소스 재료들을 모두 섞어주세요.
 3.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약불로 다진 마늘을 살짝 볶아주세요.
 4. 마늘이 익을 때쯤 해동된 새우를 넣고 맛술과 후추를 살짝 뿌려주세요.
 5. 새우가 익어 가면 소스를 넣고 새우와 소스가 잘 버무러지게 물을 살짝 넣고 섞어주세요.
 6. 버터 한 조각을 넣고 섞어주면 완성!





미래 핵심역량을 키워주는 교과융합 프로젝트 수업과 학습공동체 이야기

저자. 솔밭중학교 학습공동체
출판사. 테크빌교육

미래 사회를 위해 학교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교과융합 프로젝트 수업과 학습공동체 이야기』는 바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수업 혁신을 이루어 낸 솔밭중학교 학습공동체 이야기다. 솔밭중학교 선생님들은 자발적으로 학습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하여 학생들의 학습 참여도와 효과를 높였다. 무엇보다 교과서 지식이 단순히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과 연관되어 있음을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였다. 책은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1부는 학습공동체 운영과 그 노하우, 2부는 프로젝트 학습 설계 원리와 설계 방법, 3부는 프로젝트 학습 사례를 담고 있다. 그중 백미는 역시 학습 사례이다. 각 사례의 교과융합 수업 설계서는 그 자체로 뛰어난 성과물이며, 교사와 학생, 학교의 긍정적 변화를 한눈에 보여준다. 프로젝트 수업과 교육 혁신에 관심이 있다면 참고해서 한번 실천해 볼 만하다.



우리가 애써 외면했던 현상의 이면 교사 불신

저자. 홍섭근
출판사. 테크빌교육

대한민국의 교사들은 '교사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다. 스쿨 미투, S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학생부 기록 조작 사건 등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사건 앞에서, 사람들은 '공교육은 부실하다', '교사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하며 공교육의 상징인 교사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기에 이르렀다. 저자 홍섭근은 불신 없는 미래교육을 위해 무엇보다 교육계 내부로부터의 자성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사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객관적인 시선에서 교직 사회를 들여다보고 반성할 것은 무엇인지, 바뀌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학습하고 연구하기를 독려한다. 교사를 오해하고 불신하는 이들을 설득하려면 교사가 먼저 학습하고 연구해서 교사 불신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안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책은 학부모가 우리 교육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공교육과 교사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는 데 꼭 필요한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이다.



교실 속 작은 사회 경제교육 프로젝트

저자. 전인구
출판사. 테크빌교육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미국·캐나다·영국 등 전 세계 선진국에서는 학교 교육에 경제교육을 의무화하는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대중이 경제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신용불량·과잉부채·빈곤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깨닫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제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돈을 어떻게 모으고 쓰느냐가 삶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실 속 작은 사회 경제교육 프로젝트』는 재무 설계 전문가이자 10년차 초등학교 교사인 저자가 아이들에게 다방면으로 경제교육을 하고자 고군분투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았다. 경제교육과 교과를 연계한 프로젝트 수업의 방법과 경제와 학급운영을 접목하여 '경제 교실'을 운영했던 경험을 담아 학교와 가정에서 경제교육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쉽지만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마이크로비트로 떠나는 모험 〈마이크로비트로 떠나는 모험〉 시리즈

저자. 테크빌교육 융합교육사업부
출판사. 테크빌교육

이 책은 코딩 플랫폼 '메이크코드(MakeCode)'와 요즘 가장 인기 있는 SW 교육 교구인 '마이크로비트'를 이용해 코딩을 학습하는 워크북이다. 캐릭터와 함께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접하는 디자인 싱킹을 통해 생각을 펼치고 절차적 사고를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특히 2권 『움직이고 소리 나는 모험』이 1권 『빛나는 모험』과 차별점이 있다면 LED 전구, 피에조 버저, 감속 모터 등 좀 더 다양한 액추에이터가 포함된 교구를 함께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더 종합적인 방법을 통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입력-처리-출력의 과정을 이해하고 순차, 반복, 선택의 프로그래밍 구조를 경험할 수 있다. 쉽게 코딩을 경험할 수 있으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마이크로비트를 사용하게 한다. 차시마다 정해진 학습 목표를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유도한다.

1. 출장1

권선생님 단상툰

그림. 최성권
청주 솔밭초등학교 선생님



butigi7

교장 선생님 죄송합니다..

2. 출장2



butigi7

출장 갔다가 대전에서 돌아오는 길



52km 남았는데...

다른 길로 가 봐야겠네.



3. 출장가



butigi7

1분 1초가 급합니다.

오랜만에 대학교 동기들을 만났다.

진짜 오랜 만이네.
언제 마지막으로 봤지?

6년 전

추수연수 때
마지막으로
본 것 같다!3~4년 전에
또 봤는데 아예 기억
못하고 있군..

그래, 반갑다 친구야.

그런데 나도
확실하지가
않다.

친구 맞습니다.

butigi7

4. 동기

티처빌 플랫폼 '쌤동네'에서
4컷 웹툰 '권선생 단상툰'을
연재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이모티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동물, 쿠카'와
밴드 스티커 '수줍은 눈토끼, 토몽이'를
출시하는 등 그림 그리는
교사 권선생입니다.
저서로는 『쿠카의 코딩 크래프트』,
『메이크코드&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이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을 잇다

교사를 위한

교사가 직접 만드는 모임! 모임의 신청과 관리를 편하게~

오프라인 모임 ONE-STOP 서비스



모임을 만들자!

- √ 5분 만에 모임 개설 가능
- √ 모임신청자 확인 및 정산관리

자율 연수

소규모 모임

강연회

모임에 참여하자!

- √ 모임 신청부터 결제까지
- √ 신청한 모임은 **한눈에** 확인

"교사를 위한 모임이 교사에게 홍보된다!"



티처빌 54만명
회원대상홍보



티처빌 메인 페이지
모임 노출



정기메일, 블로그 등에
모임 소개



SNS 홍보 지원



샘동네



"많은 선생님들이 오프라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QR코드를 검색해보세요

강사섭외 서비스 OPEN



쌤·찾·자 강사와 모임을 잇다

강사를 찾아 여기저기 수소문하기 힘드셨죠?
강사 콘텐츠 확인부터 섭외요청까지
쌤찾자에서 한 번에 해결하세요!



나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싶은 강사님 누구나,
우리학교, 우리모임 연구 주제에 딱 맞는 강사를 찾는 분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선생님!

'쌤찾자'의 주인공이 되어 주세요!

강사를 찾으시나요?
강사로 활동하고 싶으신가요?

강사섭외 서비스 '쌤찾자' 무료로 이용해보세요



Tekville 테크빌교육 EDUTECH FRONTIER

테크빌교육, 에듀테크로 교육 현장을 변화시키다!
지식과 정보의 나눔을 통해 행복한 미래가치를 만들어 가는 최고의 교육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교사 지원
통합 플랫폼



티처빌연수원 교원연수 (직무·자율)

쌤동네 선생님이 만든 교육 콘텐츠

티처몰 교육 전문 쇼핑몰

키즈티처빌 영유아 교사연수 (고용보험 환급)

즐거운학교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교육 플랫폼



SW·메이커



진로진학·학습



인성심리



체험·행사·연극



예방·보건



부모교육 특강



소통대화법



진로학습코칭

행복한 부모자녀를
위한 부모교육 서비스

